



2021—5월 VOL.8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5월 VOL.8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b>I. 재정운용동향</b>	
1. 국세수입	조세분석과 (044-215-4123)
2. 재정수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3. 국가채무(중앙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4. 국채	국채과 (044-215-5135)
5.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2)
<b>II. 기타 부문별 현황</b>	
1. 국유재산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2. 연기금투자물 운용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3. 보증채무	국고과 (044-215-5123)
4. 정부출자	출자관리과 (044-215-5177)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행 등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뉴스 - 보도자료 ]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5월 VOL.88

# Contents



<b>I. 재정운용동향</b>	03
1. 총수입	05
2. 총지출	07
1)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09
2)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10
3. 재정수지	13
4. 국가채무(중앙정부)	14
<b>II. 기타 부문별 현황</b>	19
1. 국유재산	20
2. 연기금투자물 운용	23
3. 보증채무	25
4. 정부출자	25
<b>III. 주요 재정이슈</b>	27
1.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28
2.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33
3.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40
<b>IV. 주요 재정통계</b>	43
〈참고1〉 재정 용어	66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70



##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 I. 재정운용동향

- 코로나 피해 경감,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결과,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증가(+17.4조원)하였으나,
  - 1분기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전년대비 더 큰 폭으로 증가(+32.6조원)하여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20.1분기 △45.3 → '21.1분기 △30.1조원, 전년대비 +15.2조원)

## 총수입

1분기 총수입

**152.1** 조원

국세수입 및 기금수익 등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 **6.5%p** 증가 ↑

3월 총수입(누계, 조원)

**152.1**(전년대비 +32.6)

진도율

**31.5%**(+6.5%p)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9.0)하였고,

세외수입(+1.5)·기금수입(+12.1조원)도 모두 증가

3월(누계, 조원)

국세 **88.5**(+19.0)

세외 **10.1**(+1.5)

기금 **53.5**(+12.1)

## 총지출

1분기 총지출

**182.2** 조원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집행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 ↑

3월(누계, 조원)

총지출 **182.2**(+17.4)

예산 **123.1**(+2.5)

기금 **59.1**(+14.9)

## 수지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개선

'20.1분기 **△45.3**조원

'21.1분기 **△30.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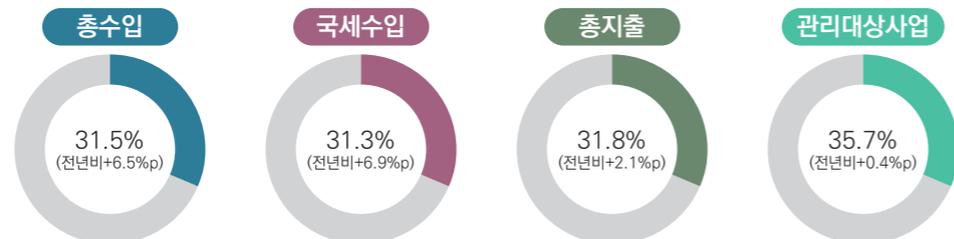
3월 통합수지(누계, 조원)

**△30.1**(+15.2)

중앙정부채무

**862.1**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1분기)



## 1. 총수입

- ◆ 1분기 총수입(152.1조원)은 국세수입(+19조원) 및 기금수입 증가(+12.1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5%p 증가(+32.6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B)	3월(당월, C)	3월(누계, D)	진도율		추경(G)	3월(당월, H)	3월(누계, I)	진도율(J=I/G)	증감		진도율	
					추경(E=D/A)	결산(F=D/B)					3월(H-C)	누계(I-D)	추경(J-E)	결산(J-F)
■ 총수입	470.7	478.8	41.8	119.5	25.4	25.0	483.0	55.0	152.1	31.5	13.3	32.6	6.1	6.5
• 국세수입	279.7	285.5	22.8	69.5	24.9	24.3	282.7	30.7	88.5	31.3	7.9	19.0	6.4	6.9
• 세외수입	29.1	26.9	1.9	8.6	29.5	31.9	29.3	2.0	10.1	34.6	0.1	1.5	5.1	2.7
• 기금수입	161.9	166.2	17.1	41.4	25.6	24.9	171.0	22.4	53.5	31.3	5.2	12.1	5.7	6.4
(사회보장성 기금) <sup>1)</sup>	95.8	100.0	10.4	24.3	25.4	24.3	99.5	14.9	35.3	35.5	4.5	11.0	10.1	11.2
• 세입세출외	-	0.1	0.0	0.0	-	0.4	-	0.0	0.0	-	△0.0	△0.0	-	-

<sup>1)</sup>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 (국세수입) 1분기 국세수입(88.5조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진도율 6.9%p 증가(+19.0조원)

- 기업의 '20년 영업이익의 증가 등으로 3월 법인세가 전년동월 대비 3.9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A)	결산(B)	3월(C)	3월(누계, D)	진도율		추경(G)	3월(H)	3월(누계, I)	진도율(J=I/G)	3월(H-C)	누계(I-D)	진도율	
					추경(E=D/A)	결산(F=D/B)							추경(J-E)	결산(J-F)
■ 국세수입	279.7	285.5	22.8	69.5	24.9	24.3	282.7	30.7	88.5	31.3	7.9	19.0	6.4	6.9
• 일반회계	271.9	276.3	22.3	67.9	25.0	24.6	274.0	29.9	86.1	31.4	7.6	18.2	6.4	6.8
- 소득세	88.5	93.1	3.2	22.2	25.1	23.9	89.8	4.8	28.6	31.9	1.6	6.4	6.7	8.0
- 법인세	58.5	55.5	13.4	15.4	26.3	27.7	53.3	17.3	20.2	37.9	3.9	4.8	11.6	10.2
- 부가가치세	64.6	64.9	1.3	14.9	23.1	23.0	66.7	1.4	17.6	26.4	0.1	2.7	3.3	3.4
- 교통세	15.5	13.9	1.2	3.8	24.3	27.0	15.7	1.7	4.7	30.1	0.5	1.0	5.7	3.1
- 관세	7.7	7.1	0.4	1.7	21.8	23.8	8.3	0.7	1.7	20.7	0.3	0.0	△1.1	△3.1
- 기타	37.2	41.8	2.8	9.9	26.7	23.8	40.2	4.0	13.3	33.0	1.1	3.3	6.3	9.2
• 특별회계	7.8	9.3	0.5	1.6	20.3	17.2	8.7	0.8	2.4	27.1	0.4	0.8	6.8	9.9

- **(세외수입) 1분기 세외수입(10.1조원)은 한은잉여금 증가(2월),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 2.7%p 증가(+1.5조원)**
  - (일반회계) 전년도 한은잉여금(+1.4조원) 2월 세입조치 등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4.4%p 증가(+1.5조원)
  -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우체국예금운용수익 +0.1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0.1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B)	3월(당월, C)	3월(누계, D)	진도율		추경(G)	3월(당월, H)	3월(누계, I)	진도율(J=I/G)	증감		진도율	
					추경(E=D/A)	결산(F=D/B)					3월(H-C)	누계(I-D)	추경(J-E)	결산(J-F)
■ 세외수입	29.1	26.9	1.9	8.6	29.5	31.9	29.3	2.0	10.1	34.6	0.1	1.5	5.1	2.7
● 일반회계	12.9	11.7	0.6	5.3	40.6	44.7	13.7	0.6	6.7	49.1	0.0	1.5	8.6	4.4
- 재산수입	4.7	4.5	0.0	3.7	79.7	83.5	6.1	0.0	5.2	84.8	0.0	1.4	5.1	1.3
- 경상이전수입	6.9	6.3	0.4	1.3	18.6	20.3	6.3	0.5	1.3	21.1	0.0	0.1	2.5	0.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9	0.7	0.1	0.2	18.9	23.0	0.8	0.1	0.2	19.8	0.0	△0.0	0.9	△3.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sup>1)</sup>	0.0	-	-	-	-	-	-	-	-	-	-	-	-	-
- 기타 <sup>2)</sup>	0.5	0.2	0.0	0.1	12.7	26.0	0.4	0.0	0.0	10.4	0.0	△0.0	△2.4	△15.6
● 특별회계	16.2	15.2	1.3	3.3	20.6	22.0	15.6	1.4	3.4	21.8	0.1	0.1	1.2	△0.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8	6.4	0.5	1.5	21.9	23.5	6.4	0.6	1.6	25.0	0.1	0.1	3.1	1.6
- 재산수입	0.7	0.6	0.0	0.1	7.8	8.7	0.4	0.0	0.0	10.5	△0.0	△0.0	2.6	1.8
- 경상이전수입	4.9	4.7	0.3	1.0	20.2	20.8	5.0	0.3	0.9	17.8	△0.0	△0.1	△2.4	△3.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	1.5	0.2	0.4	23.1	25.6	1.7	0.2	0.5	26.1	0.0	0.1	3.1	0.6
- 기타 <sup>2)</sup>	2.1	1.9	0.2	0.4	19.9	21.5	2.1	0.2	0.4	19.9	△0.0	△0.0	△0.1	△1.6

<sup>1)</sup>유가증권매각대 등 <sup>2)</sup>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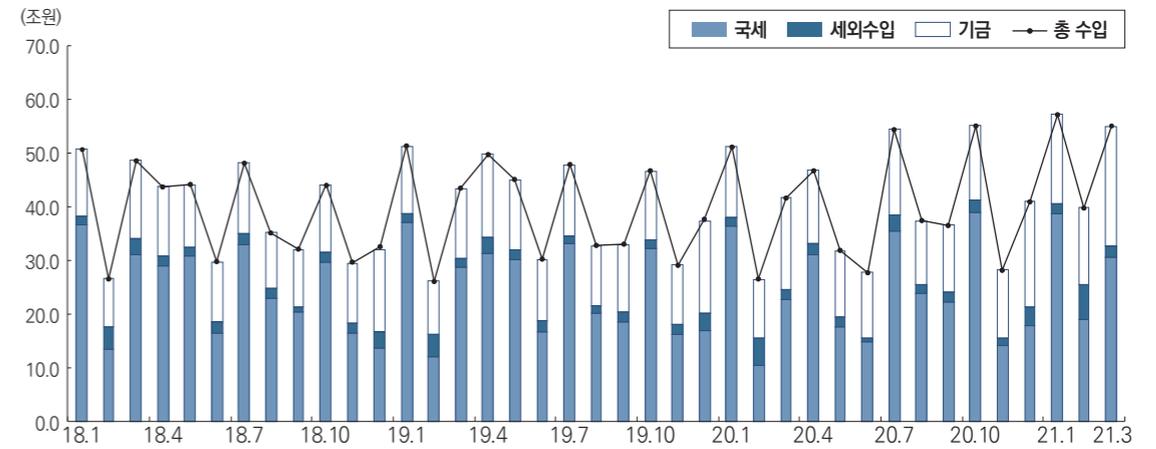
- **(기금수입) 1분기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수입(+10.9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4%p 증가(+12.1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B)	3월(당월, C)	3월(누계, D)	진도율		추경(G)	3월(당월, H)	3월(누계, I)	진도율(J=I/G)	증감		진도율(J-E)	
					추경(E=D/A)	결산(F=D/B)					3월(H-C)	누계(I-D)		추경(J-E)
■ 기금수입	161.9	166.2	17.1	41.4	25.6	24.9	171.0	22.4	53.5	31.3	5.2	12.1	5.7	6.4
- 사회보장기여금	73.4	74.6	7.8	19.1	26.0	25.6	77.0	8.3	20.2	26.2	0.5	1.0	0.1	0.5
- 재산수입	26.4	28.4	2.9	5.9	22.2	20.7	26.8	6.8	15.7	58.7	3.9	9.9	36.5	38.1
- 경상이전수입	27.4	26.6	3.0	8.0	29.2	30.1	31.0	3.4	8.7	28.1	0.4	0.7	△1.0	△1.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	7.6	0.5	1.1	14.4	14.1	7.9	0.6	1.3	16.9	0.1	0.3	2.5	2.8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3	27.3	2.9	6.9	27.4	25.4	26.2	3.0	6.9	26.2	0.1	△0.1	△1.2	0.8
- 기타*	2.0	1.8	0.1	0.4	22.6	24.5	2.1	0.3	0.7	35.3	0.2	0.3	12.7	10.8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총수입 변동 추이(당월기준)〉



## 2. 총지출

◆ 1분기 총지출(182.2조원)은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대비 2.1%p 증가(+17.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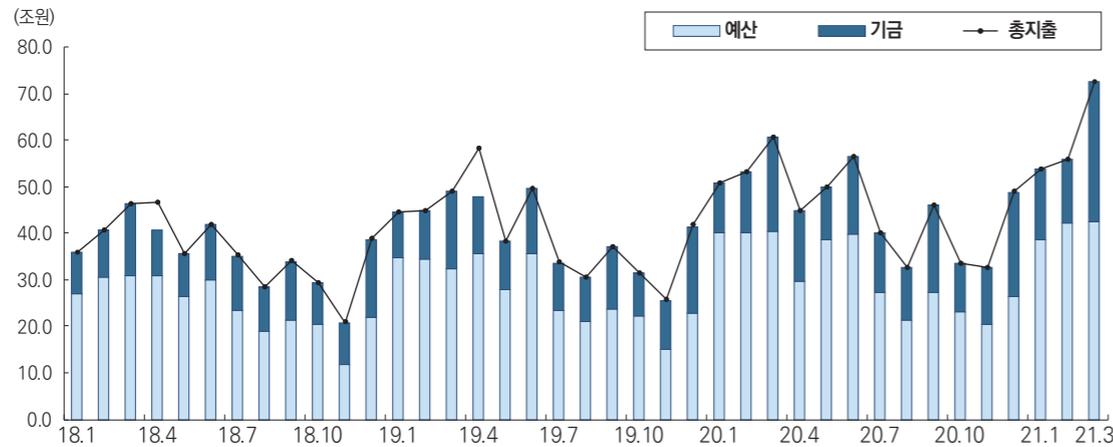
- (예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0.5조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0.15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3%p 증가(+2.5조원)
- (기금) 코로나 방역조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6.1%p)**으로 증가(+14.9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A)	결산(B)	3월(당월, C)	3월(누계, D)	진도율		추경(G)	3월(당월, H)	3월(누계, I)	진도율(J=I/G)	증감		진도율(J-E)
					추경(E=D/A)	결산(F=D/B)					3월(H-C)	누계(I-D)	
■ 총지출	554.7	549.9	60.8	164.8	29.7	30.0	572.9	72.4	182.2	31.8	11.6	17.4	2.1
● 예산	377.5	374.4	40.3	120.6	31.9	32.2	382.3	42.3	123.1	32.2	2.0	2.5	0.3
- 일반회계	323.5	320.8	32.8	100.7	31.1	31.4	321.6	33.6	102.3	31.8	0.8	1.5	0.7
- 특별회계	54.0	53.6	7.5	19.8	36.7	36.9	60.8	8.7	20.8	34.2	1.2	1.0	△2.5
● 기금	177.3	175.2	20.5	44.2	25.0	25.3	190.6	30.1	59.1	31.0	9.6	14.9	6.1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5.0	14.3	23.3	24.1	62.9	6.0	16.8	26.7	1.0	2.5	3.4
● 세입세출외 <sup>1)</sup>	-	0.4	0.0	0.0	-	1.7	-	0.0	0.0	-	△0.0	△0.0	-

<sup>1)</sup>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당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추경 (G)	3월 (당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3월 (H-C)	누계 (I-D)	
■ 총지출	554.7	549.9	60.8	164.8	29.7	30.0	572.9	72.4	182.2	31.8	11.6	17.4	2.1
- 인건비	41.6	41.0	4.6	11.8	28.5	28.9	43.8	4.7	12.3	28.0	0.2	0.4	△0.4
- 이전지출	376.9	379.2	37.7	117.4	31.2	31.0	378.7	46.6	132.0	34.8	8.9	14.5	3.7
- 자산취득	86.2	86.6	12.5	24.8	28.8	28.6	91.3	13.9	26.0	28.5	1.4	1.2	△0.3
- 물건비	26.7	25.7	3.0	6.9	25.8	26.7	30.5	3.7	7.7	25.4	0.7	0.9	△0.5
- 기타 <sup>1)</sup>	23.4	17.0	3.0	3.9	16.5	22.7	28.6	3.5	4.2	14.8	0.5	0.4	△1.7
- 세입세출외 <sup>2)</sup>	-	0.4	0.0	0.0	-	1.7	-	0.0	0.0	-	△0.0	△0.0	-

<sup>1)</sup>상환지출·예비비

<sup>2)</sup>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 ◆ 1분기에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 고용충격 완화, 방역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 청년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개선, 백신접종·진단·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

1)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 (소상공인지원) 방역조치·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분기까지 3.3조원\* 지급 완료
  - \* 5.9일자 기준 신속지급 DB 대상자 301만명 대비 약 90%(272만명) 에 4.55조원 지급 완료
- (고용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 사업도 1분기 0.5조원 집행(83.4만명)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2)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지원

- (구직급여)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 3.2조원 지원(전년대비 +0.7조원)으로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 지원(96.4만명 대상)
- (고용장려·유지) 청년층 추가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7조원(4.2만명), 고용유지지원금 0.4조원 등 일자리 안정화 사업 적극 집행(총 23.9만명)

✓ 수출·내수 개선 및 다각적 정책 노력으로 3월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 전환 ('21.4.14. 기재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20.11)△24.3 (12)△30.1 ('21.1)△31.4 (2)△14.2 (3)14.8

3) 코로나 방역 강화·대응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접종시행비 지원 등 0.1조원 집행
- (방역대응)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및 생활지원에 0.7조원 집행

✓ 중증환자 발생 감소, 작년 12월에 비해 위중증률·치명률 모두 감소 ('21.4.23. 복지부)

\* 위중증률 : ('20.12월) 3.3% → ('21.1월)2.5% → ('21.2월) 2.3% → ('21.3월) 1.6%

\* 치명률 : ('20.12월) 2.7% → ('21.1월) 1.4% → ('21.2월) 1.3% → ('21.3월) 0.5%

**④ 창업·벤처 활성화 등 민간 경기 활성화**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벤처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태조합 출자금 0.8조원 적극 집행

✓ 「1분기 벤처투자·결성, 역대 최대」(’21.4.27. 중기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로 1분기 벤처투자(1조 2455억원) 및 벤처펀드(1조 4,561억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61.1%, 186.1% 증가

- (창업환경조성) 초기 사업화자금 지원, 비대면 등 신산업분야 육성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조원 집행

**⑤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삶의 질 개선**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2,721개소), 대기오염 배출 상시 관리 지원(179개소) 등 0.1조원 집행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보일러 보급(9.5만대) 등 0.04조원 집행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관리대상사업\* 예산(343.7조원)의 1분기 집행률은 35.7%(122.6조원)으로 전년대비 0.4%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특히, 일자리(40.1%, 5.5조원), SOC(37.5%, 20.3조원)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 달성

(단위: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전년동기대비 집행률 (F-C)
	연간계획 (A)	3월까지 누계(B)	집행률 (C=B/A)	연간계획 (D)	3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합 계	307.8	108.6	35.3	343.7	122.6	35.7	0.4
중앙부처	263.8	95.2	36.1	293.3	107.1	36.5	0.4
공공기관	44.1	13.4	30.3	50.4	15.5	30.7	0.4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63%

● 주요 분야별 집행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관리대상 규모	1분기 집행실적(A)		조기집행 목표(B)		집행률 (A/B)
		(%)	(%)	(%)	(%)	
일자리	13.6	5.5	40.1	9.1	67.0	60.4
SOC	54.2	20.3	37.5	33.6	62.0	60.4
생활SOC	11.0	3.8	34.3	7.2	65.5	52.8
한국판 뉴딜	21.0	7.6	36.1	14.7	70.0	51.7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 (예산+기금)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B)	집행률(B/A)
● 중앙부처	2,933,309	1,873,712	1,071,178	36.5
교육부	617,412	391,208	221,477	35.9
국토교통부	519,866	317,353	174,682	33.6
행정안전부	490,487	324,209	173,112	35.3
보건복지부	295,484	204,146	101,048	34.2
중소벤처기업부	144,767	93,335	85,155	5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4,195	82,303	50,957	44.6
환경부	106,862	67,770	37,618	35.2
산업통상자원부	102,799	69,978	46,442	45.2
국방부	97,685	50,690	15,733	16.1
방위사업청	97,213	51,857	25,409	26.1
농림축산식품부	68,684	44,026	23,049	33.6
고용노동부	66,650	43,619	30,318	45.5
해양수산부	52,498	33,114	21,267	40.5
문화체육관광부	45,624	27,945	15,684	34.4
산림청	18,799	12,135	7,824	41.6

■ 공공기관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B)	집행률(B/A)
• 공공기관	503,591	291,235	154,599	30.7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107,901	67,520	33.7
국가철도공단	59,933	36,499	17,117	28.6
한국전력공사	50,499	29,239	11,892	23.5
한국도로공사	44,518	26,709	17,379	39.0
한국농어촌공사	24,926	16,252	10,216	41.0
한국수력원자력(주)	19,816	12,802	5,836	29.5
한국수자원공사	14,915	9,396	4,451	29.8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율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 분	총지출(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 계	-	558.0조원	-	343.7조원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558.0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39개	293.3조원
공공기관	-	-	33개	50.4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3.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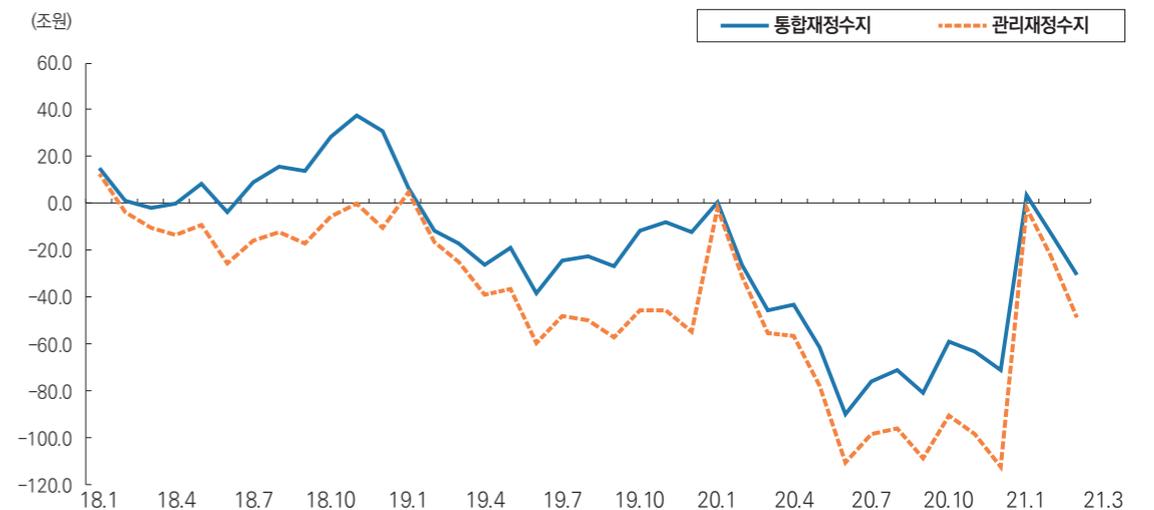
◆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세수 등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폭 전년대비 개선('20.1분기 △45.3조원 → '21.1분기 △30.1조원)

- (통합재정수지) 1분기 통합재정수지(△30.1조원)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 크게 개선(+15.2조원)
-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년대비 +8.5조원)를 제외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48.6조원)도 전년대비 적자 개선(+6.7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당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추경 (G)	3월 (당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3월 (H-C)	누계 (I-D)	
■ 총수입(A)	470.7	478.8	41.8	119.5	25.4	25.0	483.0	55.0	152.1	31.5	13.3	32.6	6.1
■ 총지출(B)	554.7	549.9	60.8	164.8	29.7	30.0	572.9	72.4	182.2	31.8	11.6	17.4	2.1
■ 통합재정수지 (C=A-B)	△84.0	△71.2	△19.0	△45.3	-	-	△89.9	△17.4	△30.1	-	1.6	15.2	-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34.6	40.8	5.3	10.0	-	-	36.5	8.9	18.5	-	3.6	8.5	-
■ 관리재정수지 (E=C-D)	△118.6	△112.0	△24.4	△55.3	-	-	△126.4	△26.3	△48.6	-	△1.9	6.7	-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 4. 국가채무(중앙정부)

◆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4조원으로, 年 발행한도(186.3조원)의 27%를 평균조달 금리 1.59%로 안정적 소화

-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 국고채 매수

\*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조원) : ('18.1/4)+3.7 ('19.1/4)△2.0 ('20.1/4)+8.6 ('21.1/4)+11.0

\*\* 3월 기준 국고채 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2%

◆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1분기 4.2조원 상환으로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분기 국가채무 잔액 : 862.1조('21.3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단위: 조원)

	'21년(잠정)	
	추경	3월(C)
■ 중앙정부 채무	938.4	862.1
• 국채*	936.0	858.5
- 국고채권	849.8	769.3
- 국민주택채권	74.8	79.3
- 외평채권(외화)	11.4	9.8
• 차입금	2.3	3.0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참고] 국채 세부내역('21년 3월 말 기준) 월말 기준 환율 적용

(단위: 조원)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sup>1)</sup>	발행	상환	잔액
2020	194.9	75.5	815.2	174.5	59.2	726.8	1.7	-	9.5	18.7	16.2	78.9
1	13.9	1.3	709.0	12.5	0.2	623.8	-	-	8.5	1.4	1.1	76.8
2	14.3	1.1	722.4	12.6	0.1	636.3	-	-	8.7	1.6	1.0	77.4
3	16.6	10.3	728.7	15.0	7.8	643.5	-	-	8.7	1.6	2.5	76.4
2021	55.1	12.1	858.5	50.4	7.8	769.3	-	-	9.8	4.7	4.2	79.3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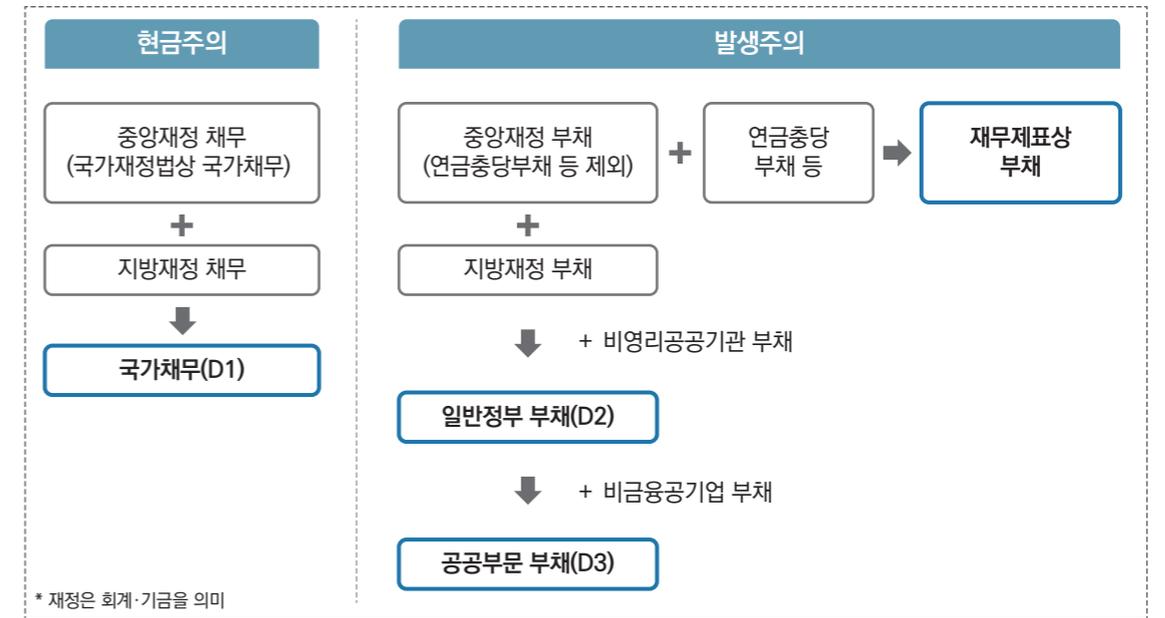
###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723.2조원 ('19년, 37.7%)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810.7조원 ('19년, 42.2%)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132.6조원 ('19년, 59.0%)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A+B-C)		723.2	810.7	1132.6	
일반 정부 (A)	중앙 정부	회계·기금	699.0	730.5	730.5
		비영리공공기관(222개)	-	50.4	50.4
		내부거래	-	△13.2	△13.2
	중앙정부 부채		699.0	767.6	767.6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25.1	47.6	47.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1.9	7.2	7.2
		비영리공공기관(95개)	-	0.9	0.9
		내부거래	-	△0.8	△0.8
	지방정부 부채		27.1	54.9	54.9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2.8	△11.8	△11.7
	비금융 공기업 (B)	중앙(111개)	-	-	359.9
지방(56개)		-	-	43.7	
내부거래		-	-	△7.8	
비금융공기업 부채		-	-	395.8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73.9	

**참고 3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29.8	34.1	35.6	39.5	40.7	42.7	43.6	43.5	45.8	
오스트리아	96.8	104.5	101.6	109.3	108.9	108.5	102.4	96.8	95.0	
벨기에	111.7	121.1	118.8	130.8	126.5	127.8	120.9	118.3	120.9	
캐나다	89.4	93.5	90.4	92.4	98.0	98.4	95.2	93.8	94.3	
체코	47.5	56.7	56.1	55.0	51.7	47.5	43.3	39.7	37.7	
덴마크	60.1	60.6	56.7	59.1	53.4	55.4	52.8	51.0	51.7	
에스토니아	9.4	13.0	13.5	13.7	12.6	13.6	13.1	13.0	13.4	
핀란드	56.8	63.5	64.9	71.0	74.6	75.6	73.7	72.7	72.7	
프랑스	103.9	111.9	112.4	120.1	120.9	124.2	123.3	121.7	124.4	
독일	86.5	88.8	84.2	84.0	80.1	77.4	72.7	69.5	68.1	
그리스	114.5	170.0	186.2	187.3	187.2	191.8	195.0	201.2	205.1	
헝가리	95.8	99.1	98.2	101.1	99.1	98.9	93.2	86.6	83.3	
아이슬랜드	94.4	92.1	84.2	77.0	70.1	64.4	63.4	62.1	63.2	
아일랜드	114.5	132.1	133.6	122.5	89.7	86.2	77.1	75.0	69.4	
이스라엘	68.9	68.5	67.1	65.7	63.8	62.1	60.6	60.9	60.0	
이탈리아	118.8	137.5	145.0	158.0	158.9	156.2	153.2	147.8	155.8	
일본	201.8	209.2	212.4	217.9	216.5	223.0	222.2	224.2	225.3	
<b>한국</b>	<b>33.1</b>	<b>35.0</b>	<b>37.7</b>	<b>39.7</b>	<b>40.8</b>	<b>41.2</b>	<b>40.1</b>	<b>40.0</b>	<b>42.2</b>	
라트비아	50.1	49.3	46.9	51.7	47.2	50.8	47.8	46.3	47.7	
리투아니아	45.7	51.2	48.8	52.6	53.3	50.9	47.0	40.7	44.5	
룩셈부르크	28.0	29.7	30.2	30.7	30.5	27.9	29.7	28.9	30.0	
네덜란드	73.8	79.6	79.0	83.4	79.7	77.7	70.9	66.0	62.5	
뉴질랜드	40.2	41.3	40.3	40.5	40.2	37.7	35.7	34.0	32.6	
노르웨이	34.7	36.0	36.6	35.1	40.5	44.5	44.9	45.6	46.8	
폴란드	62.2	65.6	66.4	71.4	70.2	73.0	68.7	66.8	63.4	
포르투갈	111.5	139.4	142.8	152.8	150.2	146.0	145.1	137.8	136.8	
슬로바키아	51.5	60.9	65.5	68.0	66.6	68.1	65.9	63.8	63.5	
슬로베니아	51.4	62.0	80.1	99.6	102.8	97.6	89.4	84.0	86.2	
스페인	78.6	93.5	106.6	119.5	117.1	117.4	115.8	114.5	117.3	
스웨덴	47.3	47.7	50.3	57.3	55.1	54.6	51.9	50.5	46.5	
스위스	41.8	42.4	41.6	41.8	41.9	40.6	41.4	39.4	38.1	
영국	103.5	107.6	103.4	113.3	112.7	119.9	117.1	113.9	117.3	
미국	99.6	103.1	104.6	104.3	104.4	106.4	105.6	106.6	108.4	
OECD 평균	101.6	107.6	108.8	111.7	111.0	112.1	109.8	108.7	110.0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투자플 운영
3. 보증채무
4. 정부출자



### 1. 국유재산

◆ 1분기 국유재산(1,160.0조원)은 행정재산(858.8조원, 74.0%), 일반재산(301.2조원, 26.0%) 모두 전년동기 및 전월대비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및 고용보험기금(채권형 펀드) 유가증권 매입 0.8조원 등으로 전월대비 1.2조원 증가, 전년대비 34.0조원 증가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1,081.8	1,125.0	<b>1,126.0</b>	1,128.2	1,128.1	1,151.5	1,164.2	1,158.8	<b>1,160.0</b>	
행정 재산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sup>2</sup> )	440.9 (5,014) (24,276)	456.1 (4,999) (24,370)	<b>454.7</b> <b>(4,984)</b> <b>(24,377)</b>	455.6 (4,978) (24,387)	455.7 (4,981) (24,370)	476.8 (5,047) (24,427)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b>489.6</b> <b>(5,067)</b> <b>(24,465)</b>
	건 물	68.5	70.9	<b>70.8</b>	71.0	71.9	74.0	72.6	<b>72.8</b>	
	공작물	288.6	287.5	<b>289.1</b>	287.9	288.1	285.7	282.8	<b>285.9</b>	
	기계기구	1.0	1.0	<b>1.0</b>	1.0	1.0	0.9	0.9	<b>0.9</b>	
	입목죽	6.7	5.8	<b>5.8</b>	5.8	5.7	5.4	5.5	<b>5.5</b>	
	선박·항공기	2.5	2.8	<b>2.9</b>	3.0	3.0	3.0	2.2	<b>2.9</b>	
	유가증권	-	-	-	-	-	-	-	-	
	무체재산	1.1	1.1	<b>1.0</b>	1.1	1.1	1.2	1.2	<b>1.3</b>	
	소 계	809.5	825.2	<b>825.4</b>	825.4	826.4	847.0	855.3	<b>858.7</b>	
	일반 재산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sup>2</sup> )	26.8 (681) (786)	28.7 (726) (788)	<b>28.7</b> <b>(750)</b> <b>(798)</b>	30.2 (759) (803)	30.2 (760) (839)	30.2 (770) (813)	29.9 (768) (814)	30.9 (771) (839)
건 물		1.4	1.8	<b>1.9</b>	2.0	2.0	1.9	1.9	<b>1.9</b>	
공작물		0.1	0.1	<b>0.1</b>	0.1	0.1	0.1	0.1	<b>0.1</b>	
기계기구		-	-	-	-	-	-	-	-	
입목죽		2.1	2.2	<b>2.2</b>	2.2	2.2	2.2	2.2	<b>2.2</b>	
선박·항공기		-	-	-	-	-	-	-	-	
유가증권		241.8	267.0	<b>267.8</b>	268.2	267.1	270.0	274.7	<b>265.8</b>	
무체재산		-	-	-	-	-	-	-	-	
소 계	272.2	299.8	<b>300.7</b>	302.7	301.7	304.5	308.9	<b>300.2</b>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 (국유재산 수입) 3월 국유재산 수입(2,815억원) 중 70%를 차지하는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1,940억원\*)와 재고자산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

\* 김포한강 산업단지 편입된 국유지 매각(881억원), 대구역 힐스테이트 주택건설 편입된 국유지 매각(106억원) 등 540여건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37,707	37,236	<b>2,460</b>	2,432	1,785	3,090	2,634	2,510	2,815
• 매각대	28,196	28,478	<b>2,196</b>	2,145	1,603	2,652	2,201	2,145	2,640
- 토지, 건물 등	20,577	20,535	<b>1,738</b>	1,548	950	1,621	2,183	1,625	1,940
- 기타고정자산	106	578	<b>6</b>	2	1	5	1	1	1
- 재고자산	7,509	7,363	<b>452</b>	596	649	1,026	17	518	699
- 유동자산	4	2	<b>0</b>	0	2	0	0	0	0
• 변상금	453	760	<b>36</b>	44	40	61	44	30	27
• 대여료	9,058	7,998	<b>227</b>	243	142	377	389	335	148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자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 (국유재산 취득·처분) 3월 기준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 7,745억원으로 처분 총액(1,205억원)을 16,540억원 초과

- (취득) 공공자금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 토지 기부채납으로 인해 취득은 15,079억원
- (처분) 유가증권 주식소각, 토지 매각 등 매각에 의한 처분은 1,194억원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계	토지	취득	47,251	49,934	1,473	8,343	5,637	33,361	9,111	1,742	2,511
		처분	21,236	23,505	674	9,452	3,551	13,058	1,265	2,369	546
	건물	취득	42,279	50,496	161	3,986	3,327	29,118	1,190	718	2,183
		처분	1,279	1,884	1,863	1,712	565	23,346	10	1	3
	기타	취득	542,294	333,596	7,657	7,174	2,097	22,830	17,177	15,852	13,051
		처분	393,618	236,478	2,811	459	549	14,278	199	5,475	656
계	취득	631,824	434,027	9,290	19,502	11,061	85,308	27,478	18,312	17,745	
	처분	416,133	261,866	5,348	11,623	4,665	50,682	1,474	7,846	1,205	
매매	토지	취득	7,918	7,928	777	435	270	1,578	281	812	806
		처분	13,854	16,300	627	2,498	213	999	1,254	2,350	538
	건물	취득	24,493	38,957	133	952	1,044	4,707	1,000	604	1,320
		처분	351	435	3	27	0	8	8	0	1
	기타	취득	456,865	268,230	7,565	6,939	1,878	13,563	16,791	15,611	12,952
		처분	393,462	236,105	2,811	184	423	2,992	198	5,475	655
계	취득	489,276	315,115	8,475	8,326	3,193	19,847	18,071	17,027	15,079	
	처분	407,667	252,840	3,442	2,709	637	3,999	1,461	7,825	1,194	
교환	토지	취득	4,168	414	29	734	0	123	0	4	5
		처분	6,560	444	30	1,595	0	65	0	12	5
	건물	취득	2,280	29	0	3	0	0	0	8	0
		처분	82	26	0	12	0	0	0	0	0
	기타	취득	69	0	0	0	0	0	0	0	0
		처분	15	0	0	0	0	0	0	0	0
계	취득	6,517	443	29	737	0	123	0	12	5	
	처분	6,657	550	30	1,607	0	65	0	12	5	
기타	토지	취득	35,165	41,592	667	7,174	5,366	31,660	8,830	927	1,700
		처분	822	6,761	16	5,359	3,338	11,994	11	8	3
	건물	취득	15,506	11,511	27	3,031	2,282	24,411	190	105	863
		처분	846	1,423	1,860	1,673	565	23,338	2	1	2
	기타	취득	85,360	65,365	92	234	219	9,267	387	241	98
		처분	141	372	0	276	125	11,286	1	0	2
계	취득	136,031	118,468	786	10,439	7,868	65,338	9407	1,273	2,661	
	처분	1,809	8,556	1,876	7,307	4,028	46,618	14	9	6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 3) 취득의 경우는 신규 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 2. 연기금투자플 운용

◆ 1분기 연기금투자플 운용 결과,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초과수익률을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수익률) 대외금리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미국채 10년물 금리 : ('20년 말) 0.92% → ('21년 3월말) 1.74%

- (수탁고) 기금집행 증가에 따른 대기성자금 축소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15,917억원)

### 〈투자플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19.3/4	'19.4/4	'20.1/4	'20.2/4	'20.3/4	'20.4/4 (A)	'21.1/4 (B)	증감 (B-A)
■ 총수탁고*	215,504	229,939	235,704	256,736	284,022	305,348	304,624	△724
• MMF	50,532	62,362	66,284	86,431	99,682	117,274	101,357	△15,917
• 채권형	72,608	82,819	88,303	87,536	105,560	110,107	122,393	12,286
• 혼합형	85,659	78,417	71,812	73,300	69,572	69,004	71,685	2,681
• 주식형(국내)	2,907	2,473	3,068	3,406	3,360	3,300	3,403	103
• 주식형(해외)	2,753	2,718	4,279	4,875	4,829	4,804	5,003	199
• 기타	1,044	1,150	1,959	1,188	1,020	859	782	△77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 〈투자플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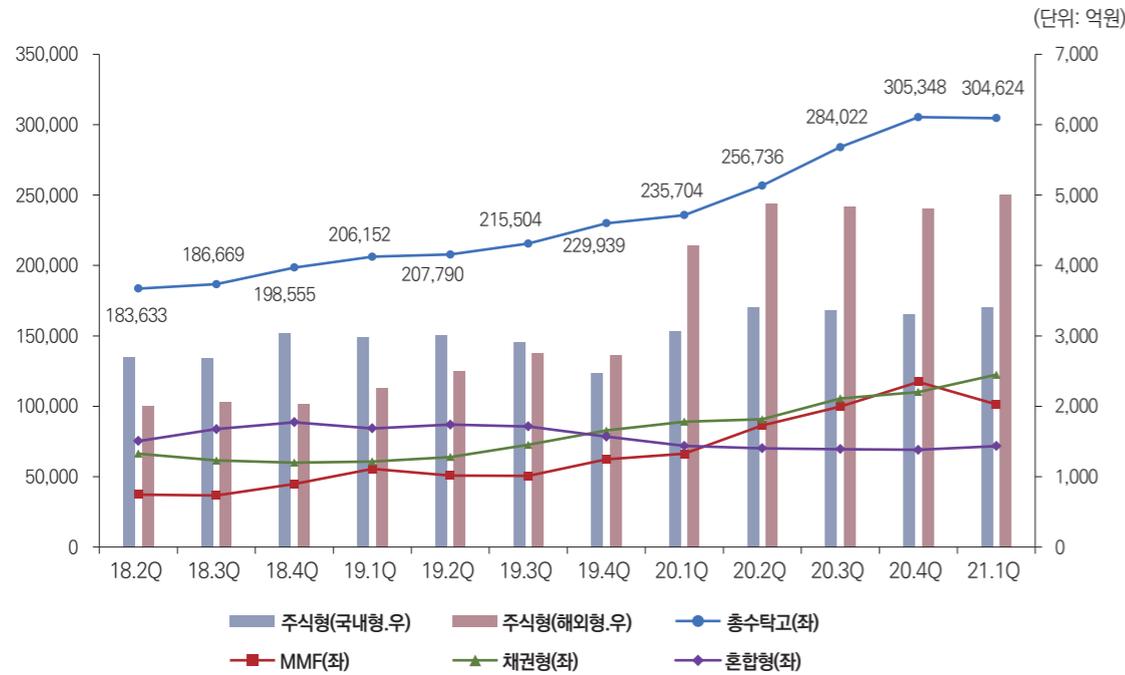
(단위: %, %p)

	'19.3/4	'19.4/4	'20.1/4	'20.2/4	'20.3/4	'20.4/4	'21.1/4
• MMF	1.68 (0.13)	1.48 (0.08)	1.45 (0.11)	1.25 (0.24)	0.76 (0.08)	0.67 (0.07)	0.71 (0.08)
• 채권형	2.57 (△0.04)	1.00 (△0.03)	2.65 (△0.53)	4.67 (1.01)	2.20 (0.62)	1.05 (△0.03)	0.02 (△0.01)
• 혼합형	0.39 (0.01)	1.32 (0.09)	△2.49 (△0.26)	3.56 (△0.08)	2.29 (0.22)	4.86 (0.85)	1.95 (0.39)
• 주식형(국내)	-2.53 (0.37)	7.78 (1.12)	△19.53 (0.29)	18.69 (△0.68)	11.11 (0.67)	26.61 (2.25)	7.61 (1.04)
• 주식형(해외)	2.38 (0.15)	6.27 (0.17)	△17.61 (0.27)	15.50 (△0.12)	5.98 (△0.13)	7.44 (△0.24)	8.8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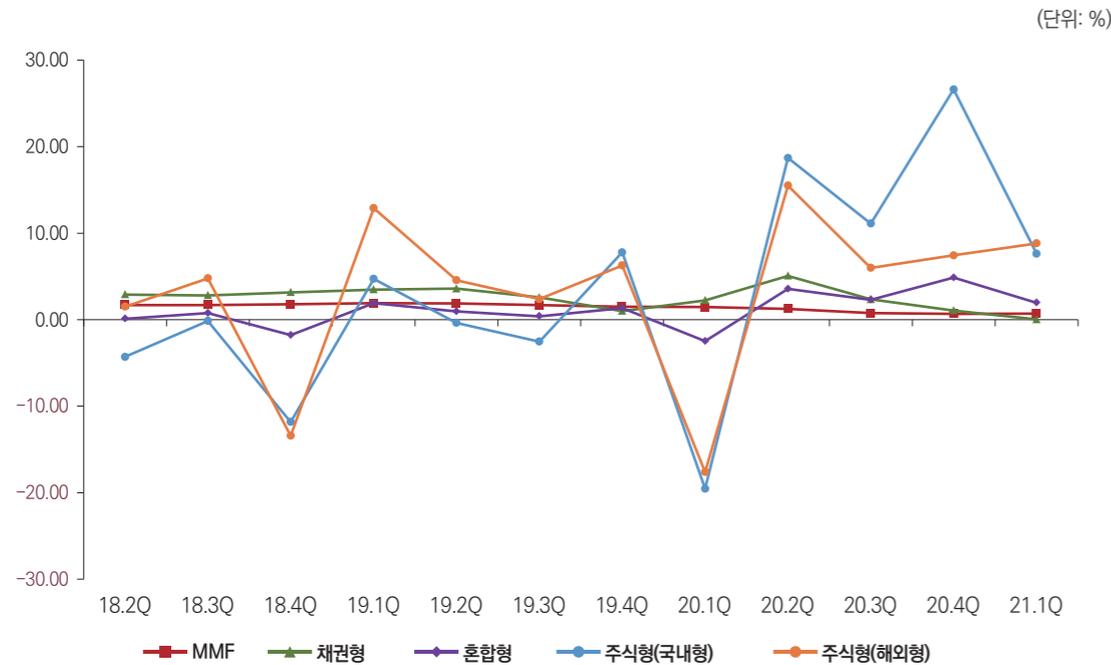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 추이〉



〈연기금투자자 수익률 현황〉



### 3. 보증채무

◆ 1분기 보증채무는 11.9조원 규모이며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등 대부분의 채권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1.8월 채무 전액 상황 예정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기간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소요로 향후 보증채무 상승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 보증채무	26.4	24.2	21.1	17.0	14.8	12.5	11.7	11.8	11.9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sup>1)</sup>	14.7	12.6	9.7	5.9	3.9	1.5	0.8	0.8	0.8
- 장학재단채권 <sup>2)</sup>	11.6	11.7	11.4	11.1	10.9	10.5	10.4	10.4	10.5
- 수리자금	0.04	0.03	0.02	0.01	-	-	-	-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	-	-	-	0.5	0.5	0.6	0.6

-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자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3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3월 발행: 1,300억원)
-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3월 발행: 200억원)

### 4. 정부출자

◆ 1분기 정부출자금(153조 5,904억원)은 고속도로 건설 등 도공 추가 출자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

(단위: 억원)

기관분류	'21년 2월말			'21년 3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78,166	729,981	1,108,147	379,700	756,810	1,136,510
준정부기관	40,819	1,066	41,885	40,959	1,066	42,025
기타공공기관	317,858	33,719	351,577	319,458	33,719	353,177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2,581	1,611	4,193
합계	739,424	766,377	1,505,801	742,698	793,206	1,535,904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9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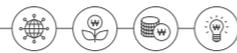


## 주요 재정 이슈

- 1.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 2.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 3.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류덕현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



## 1.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의 위기 대응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세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수지적자 비율과 국가부채 비율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성장률 침체 등으로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 크게 악화되었으나 경제회복여하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되었다.

독일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균형재정수지에 달성할 수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균형이 1인당 GDP 증가율의 변화에 후행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재정준칙과 엄정한 집행 등의 노력이 더해져 독일은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독일처럼 재정수지 흑자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GDP가 증가할수록 추세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빠른 경기회복의 기저에는 마르크화에 비해 저평가된 유로화 도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로존 내 국가들의 재정균형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2010년 대 초의 그리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단일화폐 도입으로 통화정책을 수행이 어려운 유럽각국의 입장에서 정책수단으로서 점차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제위기 시점에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 재정 현황은 코로나19 위기와 아울러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경제 내 구조적 요인이 심화되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와 같은 펀더멘털의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

**재정운용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년 500억 유로, 2009년 810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0.3%에서 2010년 △4.4%로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64%에서 2010년 82.3%로 18.3%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10년부터 경기회복, '09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시행

→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82.3%에서 2019년 59.6%으로 하향 안정

※ 재정건전성 회복의 이면에는 2010년과 2011년 4.0% 수준의 실질 성장률의 시험과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2014년부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가 있음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프랑스**

**재정운용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9년 383억 유로와 2010년 96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2.6%에서 2010년 △7.2%로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64.5%에서 2010년 85.3%로 20.8%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세입확충·지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 경제회복 지연으로 부채비율 안정화에 한계

→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85.3%에서 2019년 98.1%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 증가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스페인**

**재정운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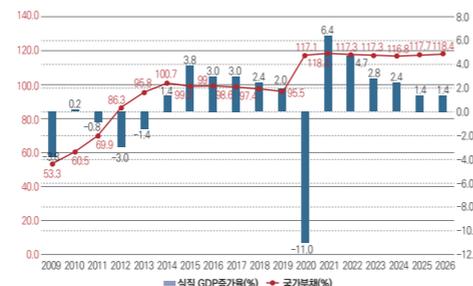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년 410억 유로와 2009년 500억 유로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 재정수지 비율은 2007년 1.9%에서 2010년 △9.5%로 적자폭 확대,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35.8%에서 2010년 60.5%로 24.7%p 증가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다시 남유럽권 제위기를 맞으며 부채비율 증가

→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60.5%에서 2019년 95.5%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 증가

**성장률 및 국가채무비율**



**2. 경제위기시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금융정책의 정책 유효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2020년 대부분의 선진국경제가 -5~6%의 역성장을 한 것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대응 방향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 확장적 재정지출은 필수적인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늘려 GDP 대비 4.7%로 확장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6%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1998년 -5.5%에서 1999년 11.3%의 V자형 성장세를 견인했고, 2008년 0.8% 수준에서 차년도 2009년 6.8%로 성장률의 반등을 불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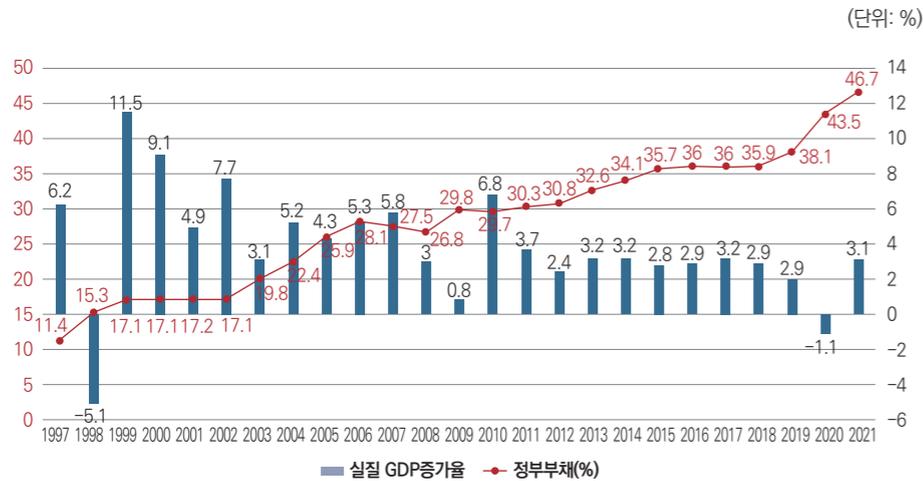
둘째는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해체하고 향후 경제혁신과 생산성 촉발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성화를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필요한 기업 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전폭적 지원 등 향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발생 후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 문제 등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 등에 있어서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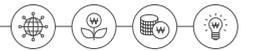
이러한 재정확충은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 내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급증한 지출소요 등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스페인,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채무비율변화는 2021년 말에 2019년 수준보다 20~3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예외없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국가부채비율



앞서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악화와 건전성 회복은 재정준칙 제정과 엄격한 집행 등에 더하여 경제의 회복에 의한 성장률 상승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추이는 과거에 비해 다소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기 이후 성장률 회복 여하에 따라 급격히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건전화 위한 세입확충·지출감축·재정준칙 강화 등은 경제 회복에 의한 성장률 상승이 동반되어야 효과적임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며

-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가시적 영향권 안에 들기 전인 작년 1월 31일 이미 공중보건위기 (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sup>1)</sup>하고, 미국 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첫 추경(83억달러)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총 3회의 신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추가됨
-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총 6회의 지원책을 합산(행정명령 포함)한 규모는 총 4조달러 규모로 GDP대비 19.1%<sup>2)</sup> 수준을 보였음<sup>3)</sup>
- 이후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바이든 아젠다의 1<sup>st</sup> part인 “American Rescue Plan(이하 미국 구조계획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의회에서의 논의 끝에 법안 발의 후 약 20일 만에 약 1.8조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이 통과(3.10.)되어 입법 발효(3.11.)됨
-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조계획법안 통과 이후 약 20일만에 바이든 아젠다의 2<sup>nd</sup> part인 인프라 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약 2.2~2.3조달러 규모의 “American Jobs Plan(이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 이후, 4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joint session of congress)에서 바이든 아젠다의 3<sup>rd</sup> part인 “American Families Plan(이하 미국 가족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규모는 약 1.8조달러로 미국 구조계획법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들을 합산한 규모(미국 구조계획법 포함)는 약 6조달러 수준

1) National Public Radio, 'Trump declares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and restricts travel from China', 2020.1.31.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20/01/31/801686524/trump-declares-coronavirus-a-public-health-emergency-and-restricts-travel-from-c>

2)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1. 자료 기준

3) 본문에서 언급되는 정책별 규모는 추정치로서 CRFB 또는 CBO의 법안비용추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 II. 바이든 정부 코로나 19 대응책 및 주요 재정정책

- 바이든 정부에서 현재까지 입법 완료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3개의 정책 및 계획 모두 대규모 정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바이든 정부의 ①미국구조계획법, ②인프라 계획, ③미국 가족계획 모두 합한 규모는 GDP대비 26% 수준으로 서두에 언급된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의 총 합산 규모(GDP대비 약 20%(추정치))보다 6%p 확대된 수치임
- 바이든 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바이든 아젠다(Build Back Better)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로서 최근 정책들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1단계) 미국구조계획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규모 정책으로 재난지원금, 보건 지출 및 백신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함
  - (2단계) 미국의 백신접종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서서 국가 인프라 재건 및 녹색 경제 등 보건 외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속 언급하며 인프라 계획을 발표함
  - (3단계)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교육, 보육 등 인적자원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음

	미국 구조계획법 (American Rescue Plan)	인프라 계획 (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총 규모	약 1.8조 달러	약 2.2~2.3조달러	약 1.8조달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수당 지급</li> <li>• 제3차 재난지원금 • 대규모 세액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 인프라</li> <li>• 청정에너지 인프라</li> <li>• 교육·보육 및 주택인프라</li> <li>• 제조업 및 R&amp;D 인프라</li> <li>• 돌봄 인프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li> <li>• 가정 및 아동</li> <li>• 각종 세액공제 연장</li> </ul>
주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li> <li>• 인프라 재건</li> <li>• 중국과의 경쟁 우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관련 지원 중심</li> <li>•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li> </ul>
정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li> </ul>
주요 재원 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개혁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조정</li> <li>• 조세격차 감축 등</li> </ul>

## 정책별 기초 및 목표

- (미국 구조계획법)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고자 백신 공급 지원, 대유행 통제, 학교 재개, 실업수당 지급 등이 포함된 약 1.8조달러 규모의 정책으로 피해 대응이 주요 목표로 설정됨
  - 동 법은 바이든 정부의 첫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입법되었던 정책인 COVID Relief Deal의 규모(9,200억달러)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됨
- (인프라 계획<sup>4)</sup>) 인프라 재건 및 업그레이드, 제조업 및 R&D 분야,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2.2~2.3조달러 규모의 정책으로 미국 구조계획법의 지출 규모보다 확장된 방향을 보이고 있음
- (미국 가족계획) 각종 세액공제 연장, 교육 분야 와 가정·아동 관련 지원 및 보건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한 약 1.8조달러 규모의 정책임
  - 바이든 정부는 Build Back Better의 아젠다 중에서도 가족계획을 강하고 포용적 경제로 가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증대와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2022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sup>5)</sup>) 내년도(FY2022) 재량지출(예산권한 기준) 계획 규모는 전년(1조 4,044억달러) 대비 8.4%(1,180억달러) 증가한 1조 5,224억달러 규모임
  - \* 이번 예산안은 단년도 재량지출 계획 규모만 포함(의무지출 제외)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예산안은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재량지출 한도의 만료를 계기로 전반적인 예산 방향의 전환이란 기초와 함께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증대 및 비국방 재량지출 예산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재량지출 예산안은 보건, 복지, 고용 등 기타 분야들이 포함된 비국방 예산이 국방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임
  - \* (국방예산) FY2022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7,530억달러 계획
  - \* (비국방예산) FY2022 비국방예산은 15.8% 증가한 7,690억달러 계획

## III. 인프라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 본 파트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 발표된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과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작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판 뉴딜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4) 본 파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1 미국 인프라 세부정책 계획’, 2021.4>의 내용을 발췌함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1년 4월호 재정동향(5월 발표 예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 ● 중점 투자 방향

- 미국은 비교적 한시적인 위기대응으로서의 미국구조계획법이 통과된 이후에, 인프라 재건, 청정 에너지 등을 필두로 한 인프라 계획,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담긴 가족계획 등을 내세우면서 생산성 제고, 미래 경쟁력 제고 등 장기적인 미래 경쟁력 제고를 언급하고 있음
- 한국판 뉴딜정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한 그린 뉴딜 사업과 안전망 등을 내세우고 있는 등, 인적 투자 및 미래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목표들이 미국의 정책 방향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국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경제 전환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음

#### [참고 1] 중점 투자 방향 비교

- 미국의 인프라 계획은 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적 지원 인프라 구축(학교 시설 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발표된 가족계획에서는 가족과 연관된 교육, 아동보육 등이 포함된 인적자원 중심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판 뉴딜정책의 경우, ①디지털 뉴딜(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①그린 뉴딜(기후 변화 대응강화,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①안전망 강화(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sup>6)</sup>

### ● 총 규모

- 미국은 미국 구조계획법 통과 이후에,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가 코로나19 영향권 이전 회계연도인 FY2019 총 재정규모(4조 4,500억달러)의 약 90%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판 뉴딜정책의 경우도 디지털 뉴딜에 총 사업비 58.2조원, 그린 뉴딜에 총 사업비 73.4조원, 안전망 강화에 총 사업비 28.4조원 등 대규모 정책을 계획/발표한 상황임
-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정책규모를 비교시 기축통화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정책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치중했던 피해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Build Back Better”아젠다 실행 의지가 더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보건 등의 이슈나 코로나 피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정책을 중점으로 하면서,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보건 및 코로나19 대응 외의 장/단기적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참고 2] 총 규모 비교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는 약 4조달러 규모로 2021년 GDP 대비 18% 수준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며, 실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규모는 114조원(디지털 뉴딜: 44.8조원/그린 뉴딜: 42.7조원/안전망 강화: 26.6조원)으로 발표됨

### ● 재원 마련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은 각각 향후 8년과 10년동안의 지출을 수반하는 장기 정책이며, 한국판 뉴딜 정책도 이에 못지않게 6년(2020~2025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은 결국 재원조달이 핵심이며, 미국 내에서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상향 조정 관련하여 찬/반 의견 및 중재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주요 이슈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결국, 미래 성장률·경쟁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함께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도 마찬가지로, 작년('20: 대전환 착수기)의 재원조달 방안은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지출 구조조정, 기금 자체 재원 활용,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정책 비용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5년까지의 중기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향후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참고 3] 재원 조달 방안 비교

- 미국의 인프라 계획과 가족계획을 합한 규모는 약 4조달러 규모로 2021년 GDP 대비 18% 수준
-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며, 실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비규모는 114조원(디지털 뉴딜: 44.8조원/그린 뉴딜: 42.7조원/안전망 강화: 26.6조원)으로 발표됨

6) 관계부처 합동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2020.7.14.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 IV.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 ● Build Back Better 아젠다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지출 확대

- 올해 입법된 미국 구조계획법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 강조해 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아젠다 하에 진행되었던 1, 2, 3차 정책이 모두 공개됨
  - 현 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 이후에 인프라 정책과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추가 부양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합해보면, GDP<sup>7)</sup>대비 약 8%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과 다시 GDP대비 10%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에 이어 GDP대비 약 8%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이 제시되는 등 총 규모는 6조달러 수준으로, 바이든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거나 계획 중인재난지원<sup>8)</sup> 부양책 총 규모는 GDP대비 약 2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 미국재정전망

- 의회예산처(CBO)에서 최근 발표(2021.3.4.)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sup>9)</sup>에 따르면 올해(FY2021)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3%로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최근 50년간 평균 재정적자는 GDP대비 약 3.3% 수준)
  - \* (GDP대비 재정적자 추이) FY2019 4.6% → FY2020 14.9% → FY2021 10.3%
  - 이와 함께, CBO는 미국 국가채무가 올해 GDP대비 1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30년 뒤인 2051년에는 GDP대비 202%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2007년 말 GDP 대비 연방 채무는 35% → 금융위기 이후 2012년 말 70% 기록
-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민주당), 연구소(브루킹스 연구소), 언론(뉴욕 타임스) 등에서는 인프라 계획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경쟁력 증대 및 제조업 성장 등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공화당), 연구소(헤리티지 재단), 언론(폭스) 등에서는 동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둔화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광범위한 정책으로서 책임성이 결여되었음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7) GDP 규모는 CBO에서 2월에 발표한 'CBO Historical Data and Economic Projections'의 2021년 경제전망 수치(명목)(calendar year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

8) BO, 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2021.3.4. -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7>

###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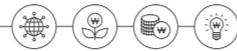
- 지난 3월에 통과된 바이든 아젠다의 첫 입법 결과물인 미국 구조계획법(H.R. 1319)을 위한 예산결 의안(S.Con.Res.5) 통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등 양당이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sup>9)</sup>, 양당 의석대로 분열된 표결 결과를 보임
  - \* 동 예산결의안은 상원에서 발의(2.2.)되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결이 50:50의 동률을 보이면서 양당이 참여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개입으로 51:50으로 통과됨
  - 인프라 계획의 경우도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 의석이 동률인 상황에서 민주당(상원)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는 현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임<sup>10)</sup>
- 바이든은 공화당에게 인프라 계획에 대한 공화당의 자체 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sup>11)</sup>, 향후 지출뿐만이 아니라, 재원조달 등이 의회 논의 단계에서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9) U.S. Senate, [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7&session=1&vote=00110](https://www.senate.gov/legislative/LIS/roll_call_lists/roll_call_vote_cfm.cfm?congress=117&session=1&vote=00110)

10) National Public Radio, 'West Virginia unions pressure Manchin to back Biden on infrastructure Plan, 2021.4.23. <https://www.npr.org/2021/04/23/989469370/west-virginia-unions-pressure-manchin-to-back-biden-on-infrastructure-plan>

11) Politico, 'Senate democrats reject Republican infrastructure bid', 2021.4.2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4/21/senate-democrats-republican-infrastructure-484035>

#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당연했던 일상이 멈추면서 피로감도 높아만 가고 있다. 팬데믹이라 하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떠오른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며 위세를 떨친 흑사병. 그러나 흑사병도 결국은 소멸되었고, 한편으로는 근대 유럽 문화의 태동이 된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찾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침체를 경험한 가운데 각국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9년만에 네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1분기 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은 급증한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전에 100조원 수준이었던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작년 174조원, 올해 186조원으로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발행에 따른 일각의 우려에도 현재까지 국고채는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의 수요 여건을 감안해 시기별·연물별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국채시장의 역량이 위기 극복의 핵심 바탕이 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국채시장은 국고채 통합발행, 국고채 전문유통시장 개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꾸준히 역량을 키워왔다. 그 결과, 대규모 국고채를 역대 최저 금리로 조달하면서, 국채시장은 재정정책

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과 실물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역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 도전을 적극 활용해 좀 더 넓은 시계에서 국채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 대책은 ①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②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③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④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고채의 수요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지고자 한다. 국고채 핵심 수요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과 개인으로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채법 개정과 함께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등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중장기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국고채 발행물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고채 증장기물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부터는 국고채 중 만기가 가장 짧은 2년물을 새롭게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금년에 신규 도입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통상의 입찰 방식이 아닌 사전 공고된 금리로 일정 물량을 발행하는 방식)는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인수여력을 보강하고 월별 국고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셋째, 대내외 충격에도 국채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수기 호가 입력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 자동호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시장 급변동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수 있는 비상조치 수단으로 국고채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끝으로, 중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 국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기반도 더욱 공고화해 나갈 것이다. 이 일환으로 금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국채연구자문단」을 출범하였다. 자문단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 제언으로 국채정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내외 국채 관련 정보를 통합·일원화하는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채시장의 최종 관리자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여전히 국내외 잠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안정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국채시장 발전 과제들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오늘의 위기와 도전이 우리 국채시장의 르네상스,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플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전년 동기비)	GDP(전기비)	GNI(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2	14,401,114	12,784	14,551,703	12,918	2,899	25,724	2.4	2.4	2.9	95.1	1.3
2013	15,008,191	13,708	15,103,849	13,795	2,995	27,351	3.2	3.2	3.8	96.0	1.0
2014	15,629,289	14,843	15,704,933	14,915	3,095	29,384	3.2	3.2	3.5	96.9	0.9
2015	16,580,204	14,658	16,632,066	14,704	3,260	28,814	2.8	2.8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1	17,471,435	15,056	3,411	29,394	2.9	2.9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3.2	3.3	104.3	2.2
2018	18,981,926	17,252	19,058,375	17,321	3,693	33,564	2.9	2.9	1.6	104.8	0.5
2019 <sup>o</sup>	19,190,399	16,463	19,357,151	16,606	3,744	32,115	2.0	2.0	0.1	103.8	△0.9
2020 <sup>o</sup>	19,244,529	16,308	19,403,481	16,443	3,747	31,775	△1.0	△1.0	△0.3	105.1	1.3
2014. II	3,885,669	-	3,899,249	-	-	-	3.4	0.7	3.6	96.3	0.7
III	3,934,254	-	3,958,069	-	-	-	3.1	0.4	2.7	97.9	0.5
IV	4,073,770	-	4,113,125	-	-	-	2.6	0.6	3.7	96.3	1.2
2015. I	3,942,618	-	3,988,772	-	-	-	2.5	0.9	7.5	100.2	3.0
II	4,113,868	-	4,090,233	-	-	-	2.0	0.4	5.1	99.9	3.8
III	4,207,908	-	4,228,807	-	-	-	3.3	1.5	7.2	101.3	3.5
IV	4,315,698	-	4,324,142	-	-	-	3.4	0.7	5.6	98.6	2.5
2016. I	4,134,826	-	4,153,731	-	-	-	2.8	0.3	4.9	102.2	2.0
II	4,344,629	-	4,345,827	-	-	-	3.6	1.1	5.8	101.9	2.0
III	4,394,216	-	4,423,302	-	-	-	2.8	0.4	3.7	102.9	1.6
IV	4,534,124	-	4,548,574	-	-	-	2.6	0.8	3.4	101.0	2.4
2017. I	4,330,273	-	4,352,098	-	-	-	3.1	0.8	2.6	104.0	1.7
II	4,541,417	-	4,509,787	-	-	-	2.7	0.7	2.1	103.6	1.6
III	4,734,362	-	4,782,699	-	-	-	3.9	1.5	5.3	106.7	3.7
IV	4,750,929	-	4,787,225	-	-	-	2.9	△0.1	3.2	102.8	1.8
2018. I	4,498,381	-	4,525,595	-	-	-	3.0	1.1	2.8	104.7	0.8
II	4,730,183	-	4,703,033	-	-	-	3.1	0.6	2.3	104.7	1.0
III	4,855,357	-	4,896,131	-	-	-	2.4	0.6	0.2	106.9	0.2
IV	4,898,005	-	4,933,617	-	-	-	3.1	0.9	1.2	102.8	0.0
2019 <sup>o</sup> . I	4,548,910	-	4,570,676	-	-	-	1.8	△0.3	△0.4	104.0	△0.6
II	4,779,070	-	4,796,666	-	-	-	2.1	1.0	0.0	104.0	△0.6
III	4,871,770	-	4,949,208	-	-	-	2.0	0.4	0.0	105.2	△1.6
IV	4,970,648	-	5,040,602	-	-	-	2.3	1.3	0.8	102.0	△0.8
2020 <sup>o</sup> . I	4,582,024	-	4,632,118	-	-	-	1.4	△1.3	0.0	103.4	△0.6
II	4,723,281	-	4,726,795	-	-	-	△2.7	△3.2	△1.7	105.3	1.2
III	4,911,815	-	4,952,810	-	-	-	△1.1	2.1	△0.1	107.3	2.0
IV	5,027,409	-	5,091,758	-	-	-	△1.2	1.2	0.7	104.4	2.4
2021 <sup>o</sup> . I	-	-	-	-	-	-	1.8	1.6	-	-	-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 2. 총수입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4		356.4	205.5	199.3	6.2	24.6	9.2	15.4	126.2	49.8	0.05
2015		371.8	217.9	210.8	7.1	23.7	8.4	15.3	130.2	53.1	0.05
2016		401.8	242.6	235.7	6.8	23.5	9.4	14.2	135.6	56.9	0.13
2017		430.6	265.4	258.5	6.9	25.5	11.0	14.5	139.5	60.5	0.14
2018	1	50.8	36.6	35.4	1.2	1.7	0.6	1.1	12.6	4.8	0.00
	2	77.4	49.9	48.4	1.5	6.0	4.0	1.9	21.5	9.6	0.00
	3	121.2	78.8	76.8	2.0	7.9	4.6	3.3	34.4	15.2	0.00
	4	169.9	109.8	106.6	3.2	11.0	5.9	5.0	49.1	21.6	0.00
	5	214.0	140.7	137.0	3.8	12.7	6.4	6.2	60.6	27.8	0.00
	6	243.8	157.2	152.9	4.3	14.7	7.0	7.7	71.8	33.0	0.07
	7	291.9	190.2	184.9	5.3	16.8	7.5	9.2	84.9	38.0	0.07
	8	327.1	213.2	207.6	5.6	18.4	8.1	10.4	95.4	43.6	0.09
	9	359.2	233.7	227.7	6.0	19.4	8.5	10.9	106.1	48.6	0.09
	10	403.3	263.4	256.7	6.7	21.3	9.3	12.0	118.5	54.0	0.09
	11	432.7	279.9	272.9	7.0	23.1	9.9	13.2	129.7	59.5	0.09
	12	465.3	293.6	285.9	7.7	26.0	10.7	15.3	145.1	64.9	0.58
2019	1	51.4	37.1	36.0	1.1	1.7	0.6	1.1	12.6	5.2	0.00
	2	77.5	49.2	47.7	1.4	5.7	3.4	2.3	22.6	10.4	0.00
	3	121.0	78.0	76.1	1.9	7.2	3.8	3.4	35.8	16.1	0.00
	4	170.8	109.4	106.4	3.0	10.1	5.1	5.1	51.3	22.9	0.00
	5	215.8	139.5	136.2	3.3	12.0	5.7	6.3	64.3	29.6	0.00
	6	246.0	156.2	152.5	3.7	14.1	6.2	7.9	75.7	35.1	0.00
	7	293.9	189.4	184.6	4.8	15.5	6.5	9.0	89.0	40.5	0.05
	8	326.6	209.5	204.5	5.0	16.8	6.9	9.9	100.2	46.4	0.05
	9	359.5	228.1	222.8	5.3	18.7	7.4	11.3	112.7	51.9	0.05
	10	406.2	260.4	254.2	6.2	20.2	7.9	12.3	125.5	57.5	0.05
	11	435.4	276.6	270.0	6.5	22.0	8.5	13.5	136.7	63.6	0.05
	12	473.1	293.5	286.0	7.4	25.3	9.5	15.7	154.0	69.6	0.37
2020	1	51.2	36.5	35.6	0.9	1.6	0.6	1.0	13.2	6.8	0.00
	2	77.8	46.8	45.6	1.1	6.7	4.7	2.0	24.3	11.3	0.00
	3	119.5	69.5	67.9	1.6	8.6	5.3	3.3	41.4	19.1	0.00
	4	166.3	100.7	98.4	2.2	10.6	6.3	4.3	55.1	24.7	0.00
	5	198.2	118.2	115.5	2.7	12.4	6.8	5.6	67.6	31.5	0.00
	6	226.0	132.9	129.6	3.4	13.1	6.9	6.2	79.9	37.4	0.01
	7	280.4	168.5	163.5	5.0	16.0	8.1	7.9	95.8	43.1	0.01
	8	317.8	192.5	186.9	5.6	17.6	8.7	8.9	107.6	49.4	0.01
	9	354.4	214.7	208.5	6.2	19.6	9.3	10.3	120.1	55.3	0.01
	10	409.5	253.8	246.2	7.6	21.7	9.8	11.9	134.1	61.5	0.01
	11	437.8	267.8	259.8	8.0	23.3	10.3	13.0	146.7	68.1	0.01
	12	478.8	285.5	276.3	9.3	26.9	11.7	15.2	166.2	74.6	0.08
2021	1	57.3	38.8	38.1	0.7	1.7	0.6	1.1	16.8	6.0	0.00
	2	97.1	57.8	56.3	1.5	8.2	6.1	2.0	31.2	11.8	0.00
	3	152.1	88.5	86.1	2.4	10.1	6.7	3.4	53.5	20.2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17.7	15.1	17.9	25.4	26.4	28.2	20.7	32.7	24.0
2004	16.7	15.7	18.3	26.2	26.7	27.4	20.5	33.2	24.1
2005	17.1	16.6	19.7	26.5	27.1	27.0	20.8	34.3	24.6
2006	17.8	17.1	20.5	26.7	27.3	28.5	21.6	34.4	24.8
2007	18.8	17.5	20.5	26.8	26.8	29.1	22.5	33.4	24.9
2008	18.4	16.8	19.4	26.0	26.6	28.7	22.9	33.2	24.2
2009	17.4	15.3	16.7	25.0	25.3	28.8	22.6	33.2	23.1
2010	17.2	15.6	17.3	26.1	26.0	28.7	21.7	32.3	23.2
2011	17.6	16.1	18.4	26.6	27.1	28.8	22.3	32.4	23.5
2012	17.8	16.5	18.6	26.0	27.9	30.6	22.9	32.3	23.9
2013	17.0	17.1	19.4	26.1	28.6	30.8	23.0	32.8	24.1
2014	17.1	18.3	19.8	26.2	28.5	30.4	22.9	32.6	24.4
2015	17.4	18.6	20.0	26.5	28.6	30.0	23.2	33.3	24.5
2016	18.3	18.3	19.7	26.5	28.7	29.5	23.5	34.4	25.0
2017	18.8	18.8	20.6	26.5	29.3	29.2	23.5	34.7	24.8
2018	19.9*	19.2	18.3	26.6	29.9	28.9	24.0	34.3	24.9
2019 <sup>o</sup>	20.0*	-	18.4	26.6	30.5	29.2	24.1	33.7	-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 · 2019잠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22.0	24.5	24.5	31.1	42.2	40.0	34.7	45.4	32.5
2004	21.2	25.2	24.8	32.2	42.4	39.2	34.3	45.7	32.5
2005	21.7	26.2	26.1	32.5	42.9	39.0	34.4	46.7	33.0
2006	22.6	27.0	26.8	32.7	43.3	40.5	34.9	46.1	33.1
2007	23.7	27.5	26.8	32.8	42.5	41.6	35.4	45.1	33.2
2008	23.6	27.4	25.7	32.1	42.3	41.6	35.8	44.1	32.6
2009	22.7	26.0	23.0	31.1	41.5	42.0	36.7	43.9	31.8
2010	22.4	26.5	23.5	32.1	42.1	41.7	35.5	43.1	31.9
2011	23.2	27.5	23.8	32.7	43.3	41.6	36.1	42.1	32.2
2012	23.7	28.2	24.0	32.1	44.4	43.6	36.8	42.3	32.7
2013	23.1	28.9	25.6	32.1	45.4	43.8	37.0	42.7	33.0
2014	23.4	30.3	25.9	32.1	45.4	43.3	36.8	42.4	33.2
2015	23.7	30.7	26.2	32.4	45.3	43.0	37.3	42.9	33.3
2016	24.7	30.7	25.8	32.6	45.4	42.2	37.7	44.3	34.0
2017	25.4	31.4	26.7	32.8	46.1	41.9	37.8	44.3	33.7
2018	26.7*	32.0	24.4	32.9	45.9	41.9	38.5	43.9	33.9
2019 <sup>o</sup>	27.3*	-	24.5	33.0	45.4	42.4	38.8	42.9	33.8

\* 2020.6.2 한국은행 발표 2018확정 · 2019잠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s Statistics 2020

### 3. 총지출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4		347.9	243.7	198.2	45.5	104.0	0.18
2015		372.0	256.8	206.0	50.9	115.0	0.19
2016		384.9	264.7	217.1	47.6	119.9	0.30
2017		406.6	275.2	225.6	49.6	127.3	4.04
2018	1	35.8	27.0	23.9	3.1	8.8	0.00
	2	76.5	57.6	49.5	8.1	18.9	0.00
	3	122.9	88.4	73.8	14.6	34.5	0.00
	4	169.6	119.2	99.6	19.6	44.5	5.94
	5	205.4	145.6	122.2	23.4	53.8	5.94
	6	247.3	175.5	147.1	28.4	65.8	5.94
	7	282.7	199.1	167.9	31.2	77.4	6.18
	8	311.1	218.1	184.8	33.3	86.9	6.18
	9	345.2	239.5	202.6	36.8	99.4	6.27
	10	374.6	259.9	220.2	39.7	108.5	6.27
	11	395.3	271.8	229.6	42.2	117.3	6.27
	12	434.1	293.7	246.5	47.2	133.8	6.60
2019	1	44.5	34.7	29.9	4.8	9.8	0.00
	2	89.3	69.1	59.5	9.7	20.1	0.10
	3	138.3	101.4	85.8	15.6	36.8	0.10
	4	196.7	137.1	116.1	21.1	49.1	10.5
	5	235.0	165.0	139.3	25.7	59.4	10.5
	6	284.5	200.7	168.8	31.9	73.2	10.6
	7	318.2	224.0	189.5	34.5	83.6	10.6
	8	348.9	245.1	207.9	37.2	93.2	10.6
	9	386.0	268.9	228.1	40.8	106.6	10.6
	10	417.6	291.0	247.0	44.0	116.0	10.6
	11	443.3	306.2	259.5	46.7	126.3	10.7
	12	485.1	329.0	277.7	51.3	144.9	11.2
2020	1	50.9	40.1	34.6	5.5	10.8	0.00
	2	104.0	80.3	67.9	12.3	23.8	0.00
	3	164.8	120.6	100.7	19.8	44.2	0.01
	4	209.7	150.3	126.8	23.5	59.3	0.1
	5	259.5	188.7	162.0	26.8	70.6	0.1
	6	316.0	228.7	193.9	34.8	87.2	0.1
	7	356.0	255.9	219.1	36.8	100.0	0.1
	8	388.7	277.2	237.9	39.3	111.4	0.1
	9	434.8	304.5	261.7	42.7	130.2	0.1
	10	468.5	327.5	281.4	46.1	140.9	0.1
	11	501.1	347.9	299.0	48.8	153.0	0.2
	12	549.9	374.4	320.8	53.6	175.2	0.4
2021	1	53.9	38.6	33.6	5.0	15.3	0.00
	2	109.8	80.8	68.6	12.1	29.1	0.00
	3	182.2	123.1	102.3	20.8	59.1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A-B-C)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GDP대비*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C)	GDP대비* (%)	GDP대비* (%)			
2014		356.4	68.0	347.9	30.0	8.5	0.5	38.0	△29.5	△1.9
2015		371.8	70.9	372.0	33.1	△0.2	△0.0	37.8	△38.0	△2.3
2016		401.8	75.4	384.9	35.8	16.9	1.0	39.6	△22.7	△1.3
2017		430.6	81.2	406.6	38.7	24.0	1.3	42.5	△18.5	△1.0
2018	1	50.8	6.1	35.8	3.6	15.0		2.5	12.6	
	2	77.4	11.8	76.5	7.1	0.9		4.8	△3.9	
	3	121.2	19.8	122.9	11.1	△1.8		8.8	△10.5	
	4	169.9	28.5	169.6	14.7	0.2		13.8	△13.6	
	5	214.0	36.2	205.4	18.4	8.6		17.9	△9.2	
	6	243.8	43.9	247.3	21.9	△3.5		22.0	△25.5	
	7	291.9	50.3	282.7	25.5	9.2		24.7	△15.5	
	8	327.1	56.2	311.1	28.2	16.0		28.0	△12.0	
	9	359.2	63.1	345.2	31.8	14.0		31.3	△17.3	
	10	403.3	69.6	374.6	35.3	28.7		34.3	△5.7	
	11	432.7	77.6	395.3	40.1	37.4		37.6	△0.2	
	12	465.3	85.1	434.1	43.4	31.2	1.6	41.7	△10.6	△0.6
2019	1	51.4	6.2	44.5	4.2	6.9		2.0	4.9	
	2	77.5	12.5	89.3	8.0	△11.8		4.4	△16.2	
	3	121.0	20.3	138.3	12.4	△17.3		7.9	△25.2	
	4	170.8	29.4	196.7	16.5	△25.9		12.9	△38.8	
	5	215.8	38.0	235.0	20.7	△19.1		17.4	△36.5	
	6	246.0	45.6	284.5	24.6	△38.5		21.0	△59.5	
	7	293.9	52.7	318.2	28.7	△24.3		24.0	△48.2	
	8	326.6	59.9	348.9	32.8	△22.3		27.2	△49.5	
	9	359.5	67.5	386.0	37.0	△26.5		30.5	△57.0	
	10	406.2	75.2	417.6	41.1	△11.4		34.1	△45.5	
	11	435.4	82.8	443.3	45.0	△7.9		37.7	△45.6	
	12	473.1	91.1	485.1	48.7	△12.0	△0.6	42.4	△54.4	△2.8
2020	1	51.2	6.8	50.9	4.9	0.3		2.0	△1.7	
	2	77.8	13.9	104.0	9.2	△26.2		4.7	△30.9	
	3	119.5	24.3	164.8	14.3	△45.3		10.0	△55.3	
	4	166.3	32.1	209.7	18.9	△43.3		13.2	△56.6	
	5	198.2	40.5	259.5	23.8	△61.3		16.6	△77.9	
	6	226.0	49.5	316.0	28.9	△90.0		20.5	△110.5	
	7	280.4	56.8	356.0	34.3	△75.6		22.5	△98.1	
	8	317.8	64.5	388.7	39.4	△70.9		25.1	△96.0	
	9	354.4	72.9	434.8	44.9	△80.5		28.0	△108.4	
	10	409.5	81.4	468.5	49.8	△59.0		31.6	△90.6	
	11	437.8	89.6	501.1	54.6	△63.3		35.0	△98.3	
	12	478.8	100.0	549.9	59.1	△71.2	△3.7	40.8	△112.0	△5.8
2021	1	57.3	10.9	53.9	5.7	3.4		5.3	△1.8	
	2	97.1	20.4	109.8	10.8	△12.7		9.6	△22.3	
	3	152.1	35.3	182.2	16.8	△30.1		18.5	△48.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중앙정부 채무							
		%	국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2001		113.1	16.0	87.8	50.9	20.6	14.1	22.5	2.8
2002		126.6	16.1	103.1	55.6	25.7	20.7	20.7	2.8
2003		158.8	19.0	140.6	81.5	30.1	28.5	15.8	2.4
2004		196.1	21.6	182.9	123.1	32.4	27.5	10.7	2.5
2005		238.8	24.9	229.0	170.5	37.1	21.4	7.6	2.2
2006		273.2	27.2	264.3	206.8	42.9	14.7	6.4	2.5
2007		289.1	26.5	280.5	227.4	43.3	9.7	5.7	2.9
2008		297.9	25.8	289.4	239.3	44.9	5.2	5.3	3.2
2009		346.1	28.7	337.5	280.9	48.3	8.3	5.4	3.2
2010		373.8	28.3	367.2	310.1	49.0	8.0	3.5	3.1
2011		402.8	29.0	397.1	340.1	48.9	8.1	2.5	3.3
2012		425.1	29.5	420.0	362.9	49.5	7.6	2.3	2.8
2013		464.0	30.9	459.5	400.7	51.3	7.5	1.9	2.7
2014		503.0	32.2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3.6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4.0	587.5	516.9	64.0	6.7	3.9	0.5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6	815.2	726.8	78.9	9.5	3.3	0.7
2021.1		835.9	-	832.1	742.0	80.3	9.7	3.1	0.7
2021.2		853.6	-	849.8	759.4	80.7	9.7	3.1	0.7
2021.3		862.1	-	858.5	769.3	79.3	9.8	3.0	0.7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구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1		121.8	17.2	-	-	-	-
2002		133.8	17.0	-	-	-	-
2003		165.8	19.8	-	-	-	-
2004		203.7	22.4	-	-	-	-
2005		247.9	25.9	-	-	-	-
2006		282.7	28.1	-	-	-	-
2007		299.2	27.5	-	-	-	-
2008		309.0	26.8	-	-	-	-
2009		359.6	29.8	-	-	-	-
2010		392.2	29.7	-	-	-	-
2011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		680.5	35.9	759.7	40.0	1,078.0	56.8
2019		723.2	37.7	810.7	42.2	1,132.6	59.0
2020		846.9	44.0	-	-	-	-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 6. 세계잉여금<sup>1)</sup>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sup>2)</sup>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		2,929,006	2,804,840	119,166 <sup>3)</sup>	18,745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		3,162,185	2,999,460	122,725 <sup>3)</sup>	16,150	106,575	105,292	654	629	-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	-	-
2020		3,923,670	3,852,230	71,441	14,248	57,193	22,653	17,615 <sup>e</sup>	-	16,924 <sup>e</sup>

<sup>1)</sup>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sup>2)</su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sup>3)</sup>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km<sup>2</sup>, 억원)

연도	구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444,088	24,940	4,670,080	652,422	2,243,460	2,878,126
2017	10,757,551	24,996	4,630,097	677,188	2,456,556	2,993,710
2018	10,817,553	25,062	4,677,016	699,211	2,418,389	3,022,938
2019	11,250,365	25,158	4,848,771	726,592	2,670,304	3,004,697
2020.12**	11,514,892	25,240	5,070,150	759,326	2,700,168	2,985,248
2021.1**	11,641,720	25,255	5,194,622	744,432	2,746,699	2,955,966
2021.2**	11,588,483	25,285	5,206,294	744,877	2,649,797	2,987,514
2021.3**	11,600,496	25,281	5,206,298	747,620	2,658,134	2,988,443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액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7-1. 국유지 현황

(단위: km<sup>2</sup>, %)

연도	구분	국유지					
		행정재산 <sup>1)</sup>		보존재산 <sup>2)</sup>		일반재산 <sup>3)</sup>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40	24,109	97	-	-	831	3
2017	24,996	24,193	97	-	-	803	3
2018	25,062	24,276	97	-	-	786	3
2019	25,158	24,370	97	-	-	788	3
2020.12**	25,240	24,427	97	-	-	813	3
2021.1**	25,255	24,441	97	-	-	814	3
2021.2**	25,285	24,446	97	-	-	839	3
2021.3**	25,281	24,465	97	-	-	816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 8. 기금·투자펀드 운용현황

###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계(66개)	699,694	2.30%	778,769	1.23%	785,868	3.02%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6.43%	690,518	-1.87%	703,327	8.51%
고용보험기금	10,554	6.40%	10,494	-2.22%	8,594	7.06%
공무원연금기금	8,294	7.05%	9,913	-1.45%	9,638	8.36%
국민연금기금	566,220	7.28%	634,916	-0.89%	647,691	11.33%
군인연금기금	987	2.72%	1,038	-2.18%	1,059	5.5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4,641	9.19%	16,481	-2.39%	16,767	11.1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820	5.93%	17,676	-2.09%	19,578	7.58%
금융성기금(8개)	20,793	1.41%	19,758	2.01%	20,909	2.30%
기술보증기금	2,205	1.52%	2,059	2.21%	2,011	2.3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90	1.45%	854	2.04%	685	2.4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1.28%	2	1.53%	0	1.60%
무역보험기금	2,980	1.44%	3,350	2.12%	3,328	2.6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66	1.38%	800	2.32%	837	2.36%
신용보증기금	6,249	1.38%	6,006	1.98%	6,234	2.5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470	1.55%	927	1.85%	695	1.9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132	1.31%	5,761	2.06%	7,119	2.54%
계정성기금(4개)	8,864	1.59%	16,305	1.61%	10,034	2.04%
공공자금관리기금	8,652	1.18%	16,038	1.42%	9,785	1.55%
공적자금상환기금	19	1.53%	15	1.88%	27	2.09%
복권기금	133	2.11%	171	1.24%	109	2.58%
양곡증권정리기금	60	1.53%	81	1.91%	113	1.93%
사업성기금(48개)	53,521	2.00%	52,187	1.45%	51,598	2.55%
과학기술진흥기금	42	1.36%	18	1.72%	27	1.74%
관광진흥개발기금	130	1.24%	109	1.76%	281	1.82%
국민건강증진기금	313	1.37%	294	1.72%	246	1.75%
주택도시기금	42,137	4.43%	40,157	-0.42%	38,410	6.06%
국민체육진흥기금	571	2.56%	790	-0.55%	980	3.67%
국유재산관리기금	1,112	2.61%	1,102	0.79%	1,303	2.92%
국제교류기금	132	2.93%	123	0.11%	105	5.01%
군인복지기금	641	2.19%	776	1.49%	814	2.53%
근로복지진흥기금	137	4.01%	101	-0.19%	107	3.53%
금강수계관리기금	3	1.34%	4	1.70%	9	1.8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	1.33%	13	1.70%	14	1.74%
남북협력기금	285	2.39%	201	0.90%	87	2.2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38	1.66%	477	1.50%	265	4.04%

	2017년		2018년		2019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51	1.80%	173	2.19%	164	2.02%
농지관리기금	1,161	1.39%	1,167	1.00%	905	2.77%
대외경제협력기금	136	1.46%	116	1.78%	137	1.87%
문화예술진흥기금	60	11.88%	66	4.83%	148	4.25%
문화재보호기금	46	1.35%	23	1.71%	19	1.7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43	5.02%	1,957	-0.75%	2,638	4.75%
방송통신발전기금	153	1.83%	144	2.33%	205	2.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	1.36%	21	1.71%	13	1.74%
보훈기금	192	1.26%	179	0.42%	159	3.02%
사학진흥기금	42	1.35%	38	1.67%	103	1.94%
석면피해구제기금	28	0.77%	17	2.85%	14	2.54%
수산발전기금	127	2.45%	124	0.38%	199	2.8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4	1.07%	92	2.44%	83	2.2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6	1.31%	44	1.70%	33	1.73%
언론진흥기금	8	1.36%	12	1.79%	16	1.91%
양성평등기금	11	1.36%	14	1.71%	24	1.7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1.30%	3	1.64%	10	1.77%
영화발전기금	220	2.39%	218	0.66%	166	4.3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5	1.36%	27	1.71%	28	1.74%
원자력기금_안전규계정	22	1.47%	48	2.05%	76	2.13%
응급의료기금	96	1.35%	104	1.71%	91	1.77%
임금채권보장기금	675	3.58%	790	-1.22%	826	5.1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8	1.89%	216	2.06%	201	2.0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948	1.40%	1,020	0.51%	1,050	4.64%
전력산업기반기금	664	1.35%	336	2.12%	232	1.81%
정보통신진흥기금	109	1.75%	177	1.68%	257	2.3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9	1.45%	74	1.78%	84	1.93%
지역신문발전기금	5	1.36%	5	1.71%	6	1.90%
청소년육성기금	18	1.39%	23	1.72%	24	1.75%
축산발전기금	199	1.36%	180	1.69%	207	1.7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	1.00%	58	1.88%	65	1.84%
한강수계관리기금	80	1.30%	104	2.10%	143	2.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4	1.38%	198	1.72%	362	1.7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	1.37%	10	1.73%	12	1.71%
국제질병퇴치기금	49	1.39%	47	1.60%	51	2.0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1	1.56%	195	1.99%	204	2.19%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19년)

(단위: %)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기금 전체(66개)	2.6	0.4	1.7	45.7	0.8	16.5	32.4	3.0	97.0
기금(66개)별 평균	41.9	13.5	9.8	14.6	12.3	2.1	5.8	55.4	44.6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0.8	0.0	0.0	45.9	0.1	17.8	35.2	0.9	99.1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6.9	0.6	0.0	32.4	12.3	17.0	30.8	7.5	92.5
고용보험기금	6.1	0.0	0.0	37.1	0.0	23.5	33.4	6.1	93.9
공무원연금기금	14.3	3.4	0.0	33.7	0.0	17.4	31.2	17.6	82.4
국민연금기금	0.4	0.0	0.0	46.7	0.0	17.6	35.3	0.4	99.6
군인연금기금	16.1	0.2	0.0	0.0	74.0	0.0	9.7	16.3	8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5	0.0	0.0	35.6	0.0	20.9	41.9	1.5	98.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0.0	0.0	41.0	0.0	22.7	33.2	3.1	96.9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9	2.4	57.8	31.7	6.0	0.0	0.2	4.3	95.7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7.8	8.0	45.2	24.7	4.1	0.0	0.1	25.9	74.2
기술보증기금	0.4	0.0	63.2	33.6	2.7	0.0	0.0	0.4	99.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0.0	65.6	25.9	7.1	0.0	0.0	1.4	98.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역보험기금	1.9	2.3	53.9	33.9	6.9	0.0	1.1	4.3	95.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0	0.0	58.0	38.8	3.1	0.0	0.0	0.0	100.0
신용보증기금	0.6	0.0	55.5	40.2	3.6	0.0	0.0	0.6	99.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8.1	61.9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0.0	65.0	25.5	9.5	0.0	0.0	0.1	99.9
계정성 기금(4개) 전체	98.8	0.6	0.0	0.0	0.6	0.0	0.0	99.4	0.6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73.3	12.5	0.0	0.0	14.2	0.0	0.0	85.8	14.2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복권기금	43.1	0.0	0.0	0.0	56.9	0.0	0.0	43.1	56.9
양곡증권정리기금	50.2	49.8	0.0	0.0	0.0	0.0	0.0	100.0	0.0
사업성 기금(48개) 전체	8.2	3.9	1.7	57.7	7.8	7.8	12.8	12.1	87.9
사업성 기금(48개)별 평균	47.5	16.1	6.0	12.0	13.5	0.7	4.2	63.6	36.4
과학기술진흥기금	89.4	10.6	0.0	0.0	0.0	0.0	0.0	10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23.1	76.7	0.0	0.0	0.0	0.0	0.2	99.8	0.2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도시기금	3.5	1.6	0.0	70.5	0.0	9.7	14.6	5.1	94.9
국민체육진흥기금	5.7	14.0	10.5	2.7	66.9	0.0	0.3	19.7	80.3
국유재산관리기금	4.5	2.4	28.6	0.0	63.5	0.0	0.9	6.9	93.1
국제교류기금	3.9	4.4	16.7	63.4	0.0	3.7	7.9	8.3	91.7
군인복지기금	16.9	2.1	2.7	51.2	0.0	0.0	27.2	19.0	81.0
근로복지진흥기금	10.4	18.4	5.2	0.0	56.6	0.0	9.4	28.8	71.2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남북협력기금	36.5	45.9	7.2	3.9	0.0	1.7	4.8	82.3	17.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8	45.2	6.7	5.5	0.0	4.4	7.5	76.0	24.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9.3	70.7	0.0	0.0	0.0	0.0	0.0	100.0	0.0
농지관리기금	23.7	8.8	0.0	1.8	65.7	0.0	0.0	32.5	67.5
대외경제협력기금	90.2	2.4	2.9	2.7	0.0	0.0	1.7	92.6	7.4
문화예술진흥기금	9.0	25.3	0.0	37.7	0.0	4.0	24.1	34.2	65.8
문화재보호기금	94.5	5.5	0.0	0.0	0.0	0.0	0.0	100.0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4	0.0	3.9	68.7	0.0	8.8	15.1	3.4	96.6
방송통신발전기금	32.9	62.1	2.7	2.2	0.0	0.1	0.0	95.0	5.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보훈기금	7.2	0.0	0.0	0.0	92.8	0.0	0.0	7.2	92.8
사학진흥기금	49.0	51.0	0.0	0.0	0.0	0.0	0.0	10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10.3	0.0	6.6	83.1	0.0	0.0	0.0	10.3	89.7
수산발전기금	26.3	0.0	0.0	0.6	0.0	0.0	73.2	26.3	73.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7.2	14.1	0.0	0.0	58.7	0.0	0.0	41.3	58.7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연론진흥기금	23.9	53.5	0.0	22.5	0.0	0.0	0.0	77.5	22.5
양성평등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1.4	28.6	0.0	0.0	0.0	0.0	0.0	100.0	0.0
영화발전기금	6.1	3.3	7.1	56.3	20.9	0.0	6.4	9.4	90.6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86.8	13.2	0.0	0.0	0.0	0.0	0.0	100.0	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11.0	3.4	78.4	7.1	0.0	0.0	0.0	14.5	85.5
응급의료기금	84.7	15.3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2.3	0.0	0.0	0.0	97.7	0.0	0.0	2.3	97.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1.7	68.3	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5	0.0	0.0	0.0	78.8	3.1	12.5	5.6	94.4
전력산업기반기금	93.2	6.8	0.0	0.0	0.0	0.0	0.0	100.0	0.0
정보통신진흥기금	24.5	67.2	4.4	1.2	2.0	0.6	0.0	91.7	8.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31.3	43.2	0.0	25.5	0.0	0.0	0.0	74.5	25.5
청소년육성기금	74.9	0.0	21.2	3.8	0.0	0.0	0.0	74.9	25.1
축산발전기금	96.5	3.5	0.0	0.0	0.0	0.0	0.0	100.0	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81.2	10.3	4.7	3.8	0.0	0.0	0.0	91.5	8.5
한강수계관리기금	23.4	10.5	53.7	12.4	0.0	0.0	0.0	33.9	66.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국제질병퇴치기금	41.5	0.0	2.2	0.0	56.3	0.0	0.0	41.5	58.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4	1.7	27.6	60.3	0.0	0.0	0.0	12.1	87.9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 2020년 수치는 '21.7월 이후 집계 예정

### 3. 기금별 투자플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2017년			2018년			2019년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총계(66개)	699,694	18,557	2.7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사회보험성기금(6개)	616,516	968	0.2	690,518	1,051	0.2	703,327	1,162	0.2
고용보험기금	10,554	-	0.0	10,494	-	0.0	8,594	0	0.0
공무원연금기금	8,294	5	0.1	9,913	-	0.0	9,638	72	0.7
국민연금기금	566,220	-	0.0	634,916	-	0.0	647,691	0	0.0
군인연금기금	987	956	96.8	1,038	1,022	98.5	1,059	1,049	99.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4,641	7	0.0	16,481	30	0.2	16,767	40	0.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820	-	0.0	17,676	-	0.0	19,578	0	0.0
금융성기금(8개)	20,793	4,761	22.9	19,758	4,458	22.6	20,909	5,395	25.8
기술보증기금	2,205	752	34.1	2,059	605	29.4	2,011	571	28.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90	303	30.6	854	204	23.9	685	123	18.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	0.0	2	-	0.0	0	0	#DIV/0!
무역보험기금	2,980	1,264	42.4	3,350	1,126	33.6	3,328	1,255	37.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66	183	23.9	800	196	24.5	837	352	42.1
신용보증기금	6,249	898	14.4	6,006	1,130	18.8	6,234	1,607	25.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470	47	1.9	927	40	4.3	695	36	5.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132	1,314	25.6	5,761	1,158	20.1	7,119	1,452	20.4
계정성기금(4개)	8,864	133	1.5	16,305	554	3.4	10,034	1321	13.2
공공자금관리기금	8,652	-	0.0	16,038	383	2.4	9,785	1212	12.4
공적자금상환기금	19	-	0.0	15	-	0.0	27	0	0.0
복권기금	133	133	100.0	171	171	100.0	109	109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60	-	0.0	81	-	0.0	113	0	0.0
사업성기금(48개)	53,521	12,695	23.7	52,187	12,002	23.0	51,598	12,677	24.6
과학기술진흥기금	42	42	100.0	19	19	100.0	27	27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30	97	75.2	109	109	99.5	281	280	99.6
국민건강증진기금	313	313	100.0	294	294	100.0	246	246	100.0
주택도시기금	42,137	3,411	8.1	40,157	2,375	5.9	38,410	2,312	6.0
국민체육진흥기금	571	467	81.9	790	541	68.5	980	872	89.0
국유재산관리기금	1,112	939	84.4	1,102	860	78.1	1,303	899	69.0
국제교류기금	132	121	91.8	123	99	80.2	105	86	81.9
군인복지기금	642	604	94.1	776	719	92.6	814	743	91.3
근로복지진흥기금	137	137	100.0	101	101	100.0	107	107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3	3	100.0	4	4	100.0	9	9	1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	10	99.0	13	13	99.2	14	13	92.9
남북협력기금	285	125	43.9	201	86	42.8	87	33	37.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38	327	74.6	477	224	46.9	265	163	61.5

	2017년			2018년			2019년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여유자금	투자플	비중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51	33	21.7	173	1	0.7	164	35	21.3
농지관리기금	1,161	783	67.4	1,168	843	72.2	905	846	93.5
대외경제협력기금	136	105	77.2	116	87	74.6	137	124	90.5
문화예술진흥기금	60	20	33.1	66	24	36.6	148	45	30.4
문화재보호기금	46	46	100.0	24	24	100.0	19	19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643	1,626	99.0	1,957	1,845	94.3	2,638	1,746	66.2
방송통신발전기금	153	37	24.4	144	26	18.3	205	27	1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7	27	100.0	21	21	100.0	13	13	100.0
보훈기금	192	192	100.0	179	179	100.0	159	159	100.0
사학진흥기금	42	41	98.1	38	37	97.1	103	50	48.5
석면피해구제기금	28	28	100.0	17	17	100.0	14	13	92.9
수산발전기금	127	127	100.0	124	124	100.0	199	199	1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4	84	100.0	92	92	100.0	83	83	10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6	13	50.8	44	44	98.9	33	31	93.9
언론진흥기금	8	8	100.0	12	12	100.0	16	16	100.0
양성평등기금	11	11	100.0	14	14	100.0	24	24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3	92.6	3	3	96.9	10	7	70.0
영화발전기금	220	214	97.3	218	190	87.0	166	145	87.3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5	15	100.0	27	27	100.0	28	28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22	2	11.1	48	10	20.8	76	13	17.1
응급의료기금	96	96	100.0	104	104	100.0	91	91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675	675	100.0	790	790	100.0	826	826	1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8	56	56.9	216	122	56.6	201	103	5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948	948	100.0	1,020	1,020	100.0	1,050	1,031	98.2
전력산업기반기금	664	329	49.5	336	237	70.6	232	212	91.4
정보통신진흥기금	109	23	21.0	177	33	18.4	257	37	14.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80	80	100.0	74	74	100.0	84	57	67.9
지역신문발전기금	5	5	100.0	5	5	100.0	6	6	100.0
청소년육성기금	18	17	92.9	23	19	84.3	24	19	79.2
축산발전기금	199	199	100.0	180	180	100.0	207	207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진기금	20	20	100.0	58	52	89.1	65	59	90.8
한강수계관리기금	80	62	77.6	104	52	50.0	143	47	32.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4	174	100.0	198	198	100.0	362	362	1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	4	100.0	10	10	100.0	12	12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49	-	0.0	47	39	82.3	51	50	98.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1	-	0.0	195	6	3.0	204	143	70.1

###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보증채무					
		GDP 대비*(%)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sup>1)</sup>	장학재단 채권 <sup>2)</sup>	수리자금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sup>3)</sup>	
2017		21.1	1.2	9.7	11.4	0.02	-
2018		17.0	0.9	5.9	11.1	0.01	-
2019		14.8	0.8	3.9	10.9	-	-
2020.1.		14.7	-	3.9	10.8	-	-
2020.2.		14.8	-	3.9	10.9	-	-
2020.3.		14.8	-	3.9	10.9	-	-
2020.4.		14.8	-	3.9	10.9	-	-
2020.5.		14.7	-	3.9	10.8	-	-
2020.6.		14.6	-	3.9	10.7	-	-
2020.7.		14.5	-	3.9	10.6	-	-
2020.8.		14.5	-	3.9	10.6	-	-
2020.9.		14.4	-	3.9	10.5	-	-
2020.10.		14.7	-	3.9	10.6	-	0.2
2020.11.		12.5	-	1.5	10.6	-	0.4
2020.12.		12.5	-	1.5	10.5	-	0.5
2021.1.		11.7	-	0.8	10.4	-	0.5
2021.2.		11.8	-	0.8	10.4	-	0.6
2021.3.		11.9	-	0.8	10.5	-	0.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 2) 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3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

###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5		1,309,449	1,068,659	105,107	78,344	31,307	6,860	19,172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2017		3,169,260	1,420,066	1,227,652	376,539	101,010	20,783	23,209
2018		3,428,359	1,542,182	1,323,165	414,934	105,312	22,600	20,166
2019		3,792,599	1,661,090	1,534,296	441,086	110,881	24,592	20,654

\* 2020년 수치는 '21.6월 이후 집계 예정

####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5		1,309,449	99,763	373,235	836,450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2017		3,169,260	457,394	89,750	2,622,116
2018		3,428,359	498,458	85,233	2,844,670
2019		3,792,599	527,296	81,678	3,183,624

\* 2020년 수치는 '21.6월 이후 집계 예정

###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국토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2017	89	201,561	173,419	21,355	6,788	49,535	26,859	40,839	14,279	29,768	40,281
2018	90	209,920	181,422	21,938	6,560	52,715	27,191	42,888	12,552	30,714	43,860
2019	90	204,282	176,819	21,315	6,148	47,529	28,970	45,401	12,498	28,156	41,728
2020	90	201,847	175,418	20,174	6,255	43,571	26,664	49,743	12,504	29,726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12. 정부출자 현황 (21.3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 (B)	지분율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4,500	396	396	100.0
	3 한국광물자원공사	20,000	20,000	19,973	99.9
	4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
	5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7 한국석유공사	130,000	105,544	105,544	100.0
	8 한국수자원공사	100,000	95,868	89,784	93.7
환경부	9 한국도로공사	400,000	375,289	328,013	87.4
	10 한국부동산원	500	90	44	49.4
국토부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178	36,178	100.0
	12 주택도시보증공사	50,000	32,653	18,124	68.3
	13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2,541	95.6
	14 한국철도공사	220,000	105,397	105,397	100.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00	384,542	339,832	88.4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28,790	87.3
	17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16,680	80.7
	18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3,846	87.3
	19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1,053	71.2
방송통신위원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 기 업(20)	1,850,150	1,293,474	1,136,510	87.9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4,658	14,658	100.0
농림부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550	550	100.0
산업부	25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0	16,000	12,288	76.8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0,116	13,666	67.9
금융위	준정부기관(6)	136,500	52,332	42,025	80.3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125,595	85,740	68.3
기재부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29 새만금개발공사	30,000	13,470	13,470	100.0
국토부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5,000	3,136	1,250	39.9
	31 한국해양진흥공사	50,000	29,193	15,500	53.1
해수부	32 한국산업은행	300,000	212,757	212,757	100.0
	33 중소기업은행	100,000	41,832	23,440	59.2
금융위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20	100.0
	기타 공공기관(8)	645,020	427,003	353,177	82.7
보훈처	35 대한송유관공사	2,700	1,981	193	9.8
	36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산업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2,287	2,269	922	40.6
문화부	38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39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
방통위	공공기관 외(5)	11,164	7,617	4,193	55.0
	합 계 (39)	2,642,834	1,780,426	1,535,904	86.3

###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19년 배당			'20년 배당				배당 성향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당기 순이익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556	1,769	3,325	22,621	1,671	2,248	3,920	20.00
2 중소기업은행	1,872	-	1,872	13,928	1,662	-	1,662	22.88
3 한국산업은행	1,328	120	1,449	4,457	1,030	90	1,120	25.12
4 한국주택금융공사	518	47	565	2,791	0	0	0	0.00
5 한국수출입은행	409	7	415	3,016	713	11	724	36.16
6 한국가스공사	282	46	328	816	79	13	92	40.80
7 한국공항공사	178	166	344	1,010	209	195	404	39.97
8 한국도로공사	1	259	260	986	1	332	334	38.99
9 부산항만공사	143	-	143	598	201	-	201	38.50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45	-	145	627	139	-	139	38.93
11 울산항만공사	95	0.1	95	299	107	0.1	107	41.01
12 인천항만공사	41	15	56	125	15	5	21	20.79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	43	54	11	-	11	20.00
14 한국조폐공사	37	-	37	96	39	-	39	40.75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9	-	29	32	13	-	13	40.67
16 한국부동산원	18	-	18	61	13	-	13	42.16
17 한국방송공사	-	-	-	16	1	-	1	8.10
18 한국농어촌공사	-	-	-	423	165	-	165	38.95
19 한국전력공사	-	-	-	△25,950	-	-	-	-
20 한국관광공사	-	-	-	△66	-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	△101	-	-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133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1,242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6,929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2,711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853	-	-	-	-
27 서울신문사	-	-	-	6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93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1,599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69	-	-	-	-
31 해외인프라지원공사	-	-	-	25	-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755	3,755	8,660	-	3,994	3,994	46.12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1,229	1,229	3,836	-	707	707	21.81
34 한국투자공사	-	262	262	611	-	367	367	60.00
35 대한송유관공사	-	10	10	222	-	8	8	34.94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0.5	0.5	△0	-	-	-	-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256	-	-	-	-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679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1,214	-	-	-	-
합계	6,696 (16개)	7,685 (14개)	14,382 (21개)	65,286 65,286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32.58

\* 중소기업은행 : 정부외지분 차등배당실시

###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연도·유형	구분	인원현황			재무현황		
		계	정원		자산	부채	당기 순이익
			임원	직원			
2016	공기업	126,931	183	126,748	563.0	363.0	9.0
	준정부기관	93,698	309	93,389	201.7	123.4	6.4
	기타공공기관	107,414	333	107,081	35.0	14.0	0.0
2017	공기업	132,590	184	132,406	569.0	364.1	4.2
	준정부기관	100,669	317	100,352	205.1	117.6	3.2
	기타공공기관	112,876	335	112,541	36.0	13.5	△0.1
2018	공기업	139,857	186	139,671	579.3	371.2	2.0
	준정부기관	114,154	317	113,837	207.2	117.7	△1.0
	기타공공기관	129,010	347	128,663	41.8	14.9	△0.3
2019	공기업	147,046	186	146,860	600.1	388.1	1.2
	준정부기관	121,039	324	120,715	218.4	122.3	△0.5
	기타공공기관	152,252	349	151,903	42.3	16.5	0.1
2020	공기업	150,080	187	149,893	615.7	397.9	△0.6
	준정부기관	123,988	328	123,660	235.9	125.7	3.1
	기타공공기관	161,667	360	161,307	50.8	21.2	2.8

\* 인원현황은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참고1〉 재정 용어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용자지출에서 용자회수를 차감한 순용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용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 수입·관유물 매각대·용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율**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플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2일(화)	7월	7일(수)
2월	9일(화)	8월	10일(화)
3월	9일(화)	9월	7일(화)
4월	7일(수)	10월	7일(목)
<b>5월</b>	<b>11일(화)</b>	11월	9일(화)
6월	8일(화)	12월	7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